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논문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발달적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예림

국 문 초 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발달적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예림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돌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학력일수록 자녀양육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시간, 노력 등이 고학력 집단에 집중되는 것으로, 자원이 특정집단에 한정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에 양극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 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발달과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발달적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의 종속변수인 시간의 특성에 따라 토빗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분석

대상의 자녀 연령을 미성년자녀로 모두 포함하였지만 자녀 연령에 따라 필요한 돌봄시간이나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녀연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 돌봄시간(총 돌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준집단인 고졸 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그 보다 높은 교육수준의 경우에 더욱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돌봄시간을 자녀 연령에 따라 모형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만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은 전체모형의 결과와 상당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돌봄에서는 집단 교육수준 차이가 커질 때, 즉 부모의 교육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에만 돌봄시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이 만 10세 이하 자녀에 비해 다소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돌봄시간에 자녀의 발달과 더욱 강한 관계를 갖는 발달적 돌봄 시간에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발달 돌봄시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달 돌봄 모형의 계수값은 자녀 총돌봄 모형의 계수값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발달 돌봄이 총 돌봄의 일부라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시간 차이는 상당부분 발달 돌봄시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달돌봄에 대한 모형에서도 자녀 연령에 따라 돌봄 양상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10세 미만 자녀와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와 비교하여 더 높은 경우, 10세 미만 자녀에 대해 더 많은 돌봄시간을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발달돌

봄에서도 나타났다. 만 10세 미만 자녀의 총 돌봄과 발달돌봄 모형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은 미성년 자녀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만 10세 이상의 자녀 돌봄시간 모형 결과는 이전의 모형에서 보인 양상과 다소간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전의 모형과 달리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모든 집단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고 교육수준의 격차가 큰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돌봄시간을 사용했다. 특히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발달 돌봄 시간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은 석사수준 이상의 부모에서만 유지되어, 고졸 이하와 비교하여 더 많은 돌봄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즉, 10세 이상에 대한 돌봄시간은 교육수준별 편차가 크지 않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집단은 돌봄시간 자체가 감소하는 학령기에도 여전히 더욱 많은 돌봄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 돌봄시간, 발달적 돌봄, 시간적 자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적자본
학 번 : 2016-20212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문제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무급노동 시간사용 설명이론	7
제 2 절 돌봄시간의 정의	14
제 3 절 교육수준과 자녀 돌봄시간	18
제 4 절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0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제 1 절 연구가설	35
제 2 절 연구모형	37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38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41
제 3 절 분석방법	46

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49
------------------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9
2.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 비교	52
제 2 절 가설검증	56
1.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	56
2.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발달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66
 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73
제 2 절 연구의 함의	76
1. 이론적 함의	76
2. 정책적 함의	78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2
 참고문헌	
부록	98
Abstract	102

〈표 목차〉

〈표 1〉 주요 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45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1
〈표 3〉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총 돌봄시간 평균 ...	53
〈표 4〉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발달돌봄시간 평균 ·	55
〈표 5〉 부모의 교육수준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64
〈표 6〉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발달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 향	71

〈그림 목차〉

〈그림 1〉 전체 연구 모형	37
-----------------------	----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돌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돌봄시간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지 살펴보았다.

인간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으며, 부모의 양육과 지원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의 초기발달은 물론 이후 장기적인 성취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인의 노력 이외의 부모의 특성이 개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불평등이 고착되거나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사회계층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자녀를 기르는 일은 물질적인 비용, 시간적인 자원, 에너지 등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부모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을 지적하는 논의는 주로 경제적인 비용에 초점을 맞추었다(Becker, 1981; Haveman & Wolfe, 1995; 김승권, 2010; 신윤정·김지연, 2010). 그러나 최근에 자녀를 위한 투자로 경제적인 비용 뿐 아니라 시간 투자의 중요성을 부각되고 있다(Folbre & Bittman, 2004; Folbre, 2008).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는 인지능력 향상 등의 질적 측면에서 경제적 투자만큼이나 중요하다(Del boca et al., 2014). 또한 우리가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 차이를 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활동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돌봄 시간 투자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세대에 전이되는 메커니즘 중 하나로도 이해할 수 있다(Guryan et

al, 2008). Coleman(1988)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전이 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요한 열쇠라고 주장한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의 수준은 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국외선행연구들은 실증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 돌봄시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했는데, 고학력의 부모들이 저학력의 부모에 비해 더욱 많은 돌봄시간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ryant & Zick, 1996b; Bianchi et al., 2004; Sayer et al., 2004b; Kimmel & Connelly, 2007; Guryan et al., 2008). 고학력의 여성들은 여전히 자녀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시간은 꾸준히 증가했다(Gimenez-Nadal & Molina, 2013; O. Sullivan et al., 2014). 고학력의 부모일수록 경제활동으로 인한 제약과 기회비용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고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England, & Srivastava, 2013) 이러한 결과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자녀 돌봄이 더욱 ‘젠더 수행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의견도 있지만(Deding & Lausten, 2006),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성별 불평등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고학력의 남성 역시 저학력남성과 비교해서 더욱 많은 자녀 돌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고, 고학력 남성일수록 이러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ianchi et al., 2004; 2006; Fisher et al., 2007). 아버지의 자녀돌봄 현상은 모든 아버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등과 관련된다(고은주·김진옥, 2016).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별에 관계없이 더욱 많은 시간에 자녀 돌봄을 할애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 돌봄의 양적 측면만 아니라 질적인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부모와 자녀간에 강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발달과 관련된 돌봄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다(Bonke & Esping-Andersen, 2009; 2011; Craig, 2006b; Guryan et al., 2008; Gimenez-Nadal & Molina, 2013; Kalil et al., 2012; Sayer et al., 2004a; Zick, Bryant & Österbacka, 2001). 이러한 돌봄은 선행연구에서 발달적 돌봄이라 정의되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 가능성과 자녀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반영하며(Blair & Hardesty, 1994),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잠재적으로 아동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다(Coleman 1988; Hango, 2007). 발달적 돌봄은 자녀의 결과적 측면에 강한 관계를 갖고(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 Sayer et al., 2004a) 부모가 자녀에 투자하는 시간의 질적 측면을 보여준다.

고학력일수록 자녀양육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시간, 노력 등이 고학력 집단에 집중되는 것으로, 자원이 특정집단에 한정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에 양극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Bonke & Esping-Andersen, 2011).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행위이지만, Folbre(1994)는 아동이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자녀 돌봄도 아동에 제공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선행연구는 자녀양육시간을 가사노동과 함께 무급노동의 범주로 묶어 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이나 성별 불평등이란 관

점에서 주로 접근하거나(강학중 · 유계숙, 2005; 김진옥, 2008; 손문금, 2003; 주은선 외, 2014)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김수정 · 김은지, 2014), 교육수준으로 인한 차이는 고려되지 않고 논의 대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동일한 무급노동범주에 포함시키기보다 개별 활동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Craig, 2007; Guryan et al., 2008; Sullivan, 2013; 송유진, 2011; 주은선 외, 2014)). 여가, 가사노동, 자녀양육 시간의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시간은 분리된 모델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Guryan et al., 2008). 무급노동은 회피의 대상으로 전제되지만 자녀를 돌보는 행위는 부모에게 보상과 즐거움을 주는 성격을 갖고 있기 회피의 대상인 가사노동과 다르게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Craig, 2007).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자녀 돌봄시간을 독자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실증연구가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도 자녀 돌봄시간의 증가 추세나(김소영 · 진미정, 2016; 송유진, 2011) 교육수준과 자녀 돌봄 사이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Cha & Song, 2016; 고은주 · 김진옥, 2016; 김영미, 2014; 노혜진, 2014). 하지만, 자녀 돌봄에서 발달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국외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총량뿐 아니라, 발달에 관련된 돌봄에서 특히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돌봄의 성격에 따라 돌봄시간을 구성하여 교육수준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내연구는 교육적 동질혼을 주요 변수로 구성하여, 부모의 교육수준 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거나(노혜진, 2014) 부모의 계층적 요인

에 따라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을 유형화한 바 있다(고은주·김진옥, 2016). 그러나 교육수준보다 부부의 교육적 동질혼 변수에 보다 초점을 맞추거나(노혜진, 2014) 돌봄시간을 유형화하여 계층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어 돌봄시간과 교육수준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시간이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이 자녀의 장기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발달적 돌봄시간에 더욱 집중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의 총량과 돌봄시간 하위 범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 돌봄시간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교육수준은 발달적 돌봄시간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무급노동 시간사용 설명 이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관련한 학계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무급노동에 대한 연구에서 쟁점 중 하나는 무급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며, 가정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행위 중에서 어떤 활동을 포함할 것인가이다. 무급노동은 가구구성원에 의해 생산되며, 가족 안이나 가족 밖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으로 정의된다. 무급노동이 여가와 구분되는 지점은 제 3자가 그 행동을 수행할 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으로, 요리, 청소, 아이돌보기, 세탁, 애완, 견돌보기, 정원손질 등의 행위는 가족원에 의해 수행되지 않고 제3자가 수행할 경우 모두 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급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UN Economics & Social Affairs, 2005).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음식준비, 청소, 세탁, 집 관리 등의 가사노동과 아이돌보기 및 그 외 가족 보살피기 등의 돌봄노동을 무급노동을 정의하고 있다(김정석 2005; 박혜경 2008; 손문금, 2003).

무급노동시간은 가구 내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사용되어왔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무급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 여성에게 주어진 성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이라고 지적해왔다(Baxter, Hewitt & Western, 2005; Greenstein, 2000; Hochschild & Machung, 1989; 김진옥, 2008; 손문금, 2005; 송다영, 2008).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은 무급

노동을 수행함에 있어 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지, 개인이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과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무급노동시간을 설명하는 대표적 경쟁 이론은 가용시간이론, 상대적자원이론, 성역할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Bianchi et al, 2000; Blair & Lichter, 1991; Greenstein, 2000; 김수정·김은지, 2007; 송다영, 2014; 은기수, 2009; 이창순, 2014; 주익현, 2012; 허경옥, 1994; 허수연, 2008;).

1. 가용시간이론

경제학자 Becker(1965)는 개인이 시간을 할당하는 과정을 효용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활동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개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려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한 개인이 시장에서 유급노동을 수행할지,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봄 등의 무급노동을 수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기회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은 가정에서 무급노동시간이 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효용극대화 가정을 사용한다. 가용시간이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론으로, 노동의 분배는 투자 가능한 시간가용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관점이다. 하루는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한정된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에 다른 활동시간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 지위, 결혼 지위, 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 등에 따른 시간 제약은 가구 내 무급 노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여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

친다(Bianchi et al. 2000).

가용시간이론에서 무급노동의 시간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급노동시간이다. 즉 유급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무급가사노동시간에 투여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무급노동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유급노동이 적어 가용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고용시간이 증가하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남녀 간 격차는 줄어든다는 입장이다(Bianchi et al., 2000; Sullivan & Gershuny, 2001). 일반적으로 취업여부에 따라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은 영향을 받는데,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한 기혼여성은 유급노동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Shelton, 1990). 여성자녀의 수나 연령, 가족의 형태가 개인의 시간활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용시간이론의 설명 변수에 포함시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Bianchi et al., 2000),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연구도 있다(Fuwa 2004; Sullivan & Gershuny, 2001).

2. 상대적 자원이론

상대적 자원이론 역시 무급노동시간이 배분되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효용극대화 가정을 사용하는데, 가용시간이론과 달리 무급노동이 결정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개인이 갖고 있는 상대적 자원이라고 설명한다(Blood & Wolfe, 1960; Blair & Lichter, 1991). 그 적용 과정에 있어 자원을 교환수단으로 보거나, 권력의 원천으로 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상대적 자원이론으로 가구내 노동을 설명한 첫 번째 방식은 개인의 자원이 권력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이다(Blood & Wolfe, 1960; Godwin 1991). 상대적 자원이론에 대한 두 번째 방식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가정한다. 가구 내 노동시간에 대한 배분은 임금이나 교육수준 등의 개인이 갖고 있는 상대적 자원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가구는 부부단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간배분의 한계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노동시간을 배분하는가가 중요해진다. 즉 부부 간의 무급노동시간은 남편과 아내의 자원수준으로 결정되는데, 부부는 각각 임금노동과 무급노동에 대한 역할에서 특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 이론은 특화(specialization) 이론이라고도 불린다(Hook, 2006).

상대적 자원이론에서는 남녀 모두가 가구 내 노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가정한다(Shelton & John, 1996). 특히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을 자신이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결혼한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늘 자원과 시간을 둘러싸고 갈등이 잠재하게 되고, 이를 둘러싼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구 내에서 무급노동시간 사용은 이러한 협상의 결과인 것이다.

3. 성역할이론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가용시간이론과 상대적 자원이론으로 가구 내 무급노동시간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Ferree 1990; Greenstein, 1996; Greenstein, 2000). 그들은 가구 내 무급노동시간 배분이 시간사용 능력이나 합리적 의사결정보다

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역할, 즉 젠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성역할이론은 가사노동의 분담에서의 젠더 요인에 주목하여 경제적 교환의 논리가 아닌 개인의 가치관, 사회화된 성역할 등의 측면에서 접근한다(Fuwa, 2004; Hook, 2006).

이러한 관점은 가구 내 무급노동에 대해 중립적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가구 내에서 성역할을 표출해내는 과정으로 본다(Bianchi et al., 2000). 가구 내 무급노동은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성역할을 재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무급노동의 수행은 그 자체 젠더 상징성을 띠는 행위로 볼 수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성역할 관점에서 젠더는 개인의 주 정체성으로, 결혼과 가족역할에서 일상적인 가사노동행위는 이러한 성역할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반영이고(Shelton & John, 1996; West & Zimmerman, 1987) 개인은 가사노동을 통해 적합한 젠더역할을 수행한다(Hook, 2006).

성역할 관점은 사회적으로 여성 혹은 어머니에게 가구 내 무급노동의 주된 수행자로서 역할이 부여되어있음을 지적한다. 즉, 가구 내 무급노동 수행 정도를 통해 개인은 자신 부여받은 ‘적절한’ 성역할을 수행하는데, 여성은 보다 많은 무급노동을 수행하게 되는 반면 남성은 무급노동 수행을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역할의 영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Bianchi et al., 2000).

한편, 앞선 세 가지 이론들은 남녀 모두가 가구 내 노동, 즉 무급노동을 부담하지 않으려하며 회피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전제한다(Shelton & John, 1996). 지금껏 자녀 돌봄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사노동과 동일한 무급노동시간으로 간주되어 왔다(Guryan et al., 2008).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Aguiar과 Hurst(2007)는 자녀 돌봄이 완벽한 대체재는 아니어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여가로 볼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일반적 가사노동보다는 즐거운 행위로 보고되는 점에서 여타의 가사노동과 구분되어야한다고 보았다. 자녀 돌봄은 돌봄에 의존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즐거움과 보상의 요소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회피되는 활동으로 여겨지는 가사노동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Craig, 2007; Sullivan, 2013; 송유진, 2011; 주은선 외, 2014). 즉, 개인들은 자녀 돌봄에 대해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면이 강하다(Bittman et al., 2003; Craig, 2007).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의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Deding & Lausten, 2006; Guryan et al., 2008; Kimmel & Connelly, 2007). Guryan와 동료연구자들은(2008) Becker(1965)의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 돌봄에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이 가사노동과 여가시간과 유사한지 검토했다. 그들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녀 돌봄을 가사노동의 또 다른 형태로 간주하고 포함시켜왔던 것과 달리, 자녀 돌봄은 가사노동과 구분되는 활동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자녀와 함께하는 오락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 부모들은 즐거운 활동으로 보고하며, 교육수준과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나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과 상반되게 자녀 돌봄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Deding과 Lausten(2006)의 연구 결과 역시 시간당 로그임금이 증가할 때,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자녀 돌봄시간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인바 있다. 자녀 돌봄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은 물론 가사노동과도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결정요인도 다르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시간을 분리된 모델로 검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선행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Deding & Lausten, 2006; Guryan et al., 2008).

이처럼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에 대한 개인의 선호가 다른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출산율 저하와 자녀의 의미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England, & Srivastava, 2013; Sayer et al., 2004a). 평균적인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과거보다 자녀 중심적이고 노동 집약적 돌봄이 이상적인 자녀 돌봄으로 강조되며 변화되었다(Hays, 1996). 또한 개인들은 적은 수의 자녀에게 물질 자원과 시간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자녀의 출산과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Bianchi et al., 2006). 과거에는 자녀를 가정의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경제적 자원으로 여기는 성격이 강했다면, 점차 자녀는 부모에게 정서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로 변화하였고 돌봄에 대한 개인의 태도 역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Sayer et al., 2004a).

제 2 절 돌봄시간의 정의

자녀 돌봄과 가사노동을 동일한 무급노동 선상에서 이해할 것인지 독자적인 영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큼, 자녀 돌봄이라는 행위에 어디까지 포함해야하는가 역시 간단하지 않다. 자녀 돌봄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자녀 돌봄시간의 구성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자녀 돌봄시간의 범위를 쉽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자녀 돌봄의 상당 부분이 다른 활동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Folbre & Yoon, 2007).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자녀 돌봄시간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발달적 활동에 부모가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행동(primary care)으로 발생한 자녀 돌봄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England & Srivastava, 2013; Gimenez-Nadal & Molina, 2013; Guryan et al., 2008; Sayer et al., 2004b). 기존에 시간일지를 분석한 국내연구들 역시 대체로 동시행동(secondary care) 등은 제외하고 시간일지에 주행동으로 기록된 돌봄만을 분석하고 있다(고은주·김진욱, 2016; 김소영·진미정, 2016; 노혜진, 2014). 주행동으로 자녀 돌봄을 측정하는 것은 보다 일관적인 반면, 동시행동은 측정방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Folbre & Yoon, 2007). 또한 연구자들은 주행동의 자녀 돌봄은 부모와 자녀 간에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활동들, 예를 들어 읽기, 이야기하기 등인 반면, 동시행동의 자녀 돌봄은 보다 감독적이고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Folbre & Yoon, 2007; Gimenez-Nadal & Molina, 2013). 하지만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진 돌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접근성을 대변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Lamb et al., 1985) 자녀돌봄에서 주요하게 고려될

부분이다. 동시행동의 자녀돌봄이란 일차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활동에 몰두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시간일지를 사용한 외국 연구들은 동시행동으로 수행된 자녀 돌봄을 포함한 전체 자녀 돌봄시간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Bianchi et al., 2004; Connelly & Kimmel, 2015; Craig, 2006; Folbre & Yoon, 2007; Milkie, Raley, & Bianchi, 2009; Zick & Bryant, 1996). 또한 상당한 양의 자녀 돌봄이 동시 혹은 부차적 행동으로 수행되고 있어서, 다른 활동과 동시에 발생한 자녀 돌봄시간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자녀 돌봄시간의 총량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Altintas, 2015; Bianchi et al., 2004; Zick & Bryant, 1996). 실제로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TV 등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들은 동시행동을 많이 수행하며, 여가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동시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Bianchi et al., 2006). Kimmel 과 Connelly(2007)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서 임금이 자녀 돌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주 행동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들은 주행동이 아닌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은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돌봄의 범주에 어떠한 행동을 포함하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선행연구들이 주 행동에 한정하여 돌봄시간을 분석한 주된 이유는 동시행동이나 부 행동에 대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이다. 즉 부수적으로 수행된 돌봄행위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질적 측면을 담아내고 있는지에 따라,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지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에 동시적으로 수행된 돌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면¹⁾, 보다 넓은 범

위의 돌봄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누락되는 정보 없이 돌봄시간 총량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 행동은 물론 동시행동으로 수행된 보다 넓은 범위의 돌봄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생활시간자료에서 부모가 특정 행동을 함께 한 사람²⁾이 자녀인 경우는 돌봄 시간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시항목으로 수행된 돌봄은 다른 행위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은 명확하게 자녀 돌봄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보고하는 것과 달리 함께한 사람 항목은 자녀와 함께 공간을 공유할 뿐,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함께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생활시간자료, 2014).

또한 최근 선행연구들은 자녀 돌봄시간을 검토함에 있어 돌봄시간의 하위범주를 구성하여 자녀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주의 돌봄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위 범주 구성에 있어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 돌봄과 발달적 돌봄, 그리고 그 외 돌봄시간으로 분류하고 있다(Altintas, 2015; Guryan et al., 2008; Gimenez-Nadal & Molina, 2013; Kalil et al., 2012; Sayer et al., 2004a; Zick, Bryant & Österbacka, 2001).

기본적 돌봄³⁾은 주로 자녀의 안전이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1) 2014 생활시간조사는 주 행동은 물론 동시행동으로 수행된 돌봄에 대하여 주행동과 동일한 세부항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3장 연구가설 및 방법의 변수정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2) 함께 한 사람은 공간을 같이 하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행동을 같이한 사람이 기입대상이 되고, 함께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기입

3) 연구자들마다 신체적 돌봄(Physical care)이라고 표현하거나 기본적 돌봄(Basic care)로 표현하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사용한 기본적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Zick & Bryant(2001)는 유사한 활동에 대해 Daily care라고 지

활동으로(Craig, 2007), 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간호 등의 활동이 해당된다(Craig 2006b; Gimenez-Nadal & Molina, 2013; Guryan et al., 2008; Kalil et al., 2012). 반면 발달적 돌봄은 가르치기, 놀아주기, 이야기하기, 숙제 봐주기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강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돌봄이다(Bonke & Esping Andersen, 2009; Criag, 2006b; Guryan et al., 2008; Gimenez-Nadal & Molina, 2013; Kalil et al., 2012; Sayer et al., 2004a; Zick, Bryant & Österbacka, 2001). 이러한 활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 가능성과 자녀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반영하며(Blair & Hardesty, 1994), 부모가 자녀에 투자하는 시간의 질적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발달적 돌봄은 자녀의 결과적 측면에 더욱 강한 관계를 갖는데(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 Sayer et al., 2004a), 아동이 초기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고(Snow, 2006), 잠재적으로 아동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면 자녀의 인적자본이 더욱 향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을 자녀의 발달이나 장기적 성취와 관련된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분석은 발달과 관련된 명확한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Zick, Bryant & Österbacka.,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녀 돌봄의 범위를 주행동과 동시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돌봄의 성격에 따라 하위 범주를 구성하여 전체 자녀 돌봄 시간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은 물론 발달과 관계되는 돌봄 시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칭하고 있다. 또한 발달적 시간 역시, 연구자마다 발달적 돌봄(Developmental care) 혹은 교육적 돌봄(Educational care)으로 표현하는 차이가 있으나 세부 활동이 유사하기 때문에 발달적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제 3 절 교육수준과 자녀 돌봄시간

교육수준은 무급노동시간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높은 교육수준은 더 많은 시간을 유급노동 시장에 할애하는 효과를 갖는다(Criag, 2006b). 즉, 높은 교육수준이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의 임금이 높아지면 기회비용이 높아져, 더 많은 시간을 유급노동에 할애하고 무급노동을 줄인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은 상대적 자원으로 활용되어 여성의 협상력을 높여 무급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Becker, 1981; Greenstein, 2000; Shelton & John, 1996), 성역할 이론에서 예측하듯이 고학력의 여성일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갖고 있어 가구 내에서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Bianchi et al., 2000; Godwin, 1991; Shelton & John, 1996). 이처럼 경제학 이론이나 성역할 이론은, 특히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 돌봄을 포함하여 가사노동 등의 무급노동에 할애되는 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교육수준은 임금수준을 높여, 유급노동 이외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이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낳게 하고 자녀 돌봄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게 한다(Craig, 2006b). 또한 고학력자의 경우, 유급노동과 자녀 돌봄 사이의 선택에서 높은 임금수준으로 인한 구매력으로 시장에서 돌봄을 구매해 유급노동을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England, & Srivastava, 2013).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유급노동 참여율이 극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자연히 기회비용도 높아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돌봄시간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 많은 실증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Sandberg & Hofferth 2001; Sayer et al., 2004a). 다시 말해 부모의 시간 결정 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유급 노동시장 참여는 물론 가사노동 등의 다른 무급노동시간과도 다른 논리로 작용되고 있다(Hallberg & Klevmarken(2003). 임금률이나 소득 등의 경제적 유인이 직접적으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고학력의 부모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자녀수가 적다는 것을 고려한다면(England, & Srivastava, 2013) 이러한 결과는 더욱 의문스럽다.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관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차이로 인해 돌봄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Altintas, 2015; Cabrera, Hofferth, & Chae, 2011).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임금수준, 자본력 등의 물질적 자원이나 시간 자원의 차이가 돌봄시간에 대한 차이로 이어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보다 높은 구매력을 가진 부모는 가사노동 등 다른 무급노동을 외주화하여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할애하는 것이다(England, & Srivastava, 2013; Cha & Song 2016). 즉 교육수준 자체가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으로 인해 증가된 임금 등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자녀 양육에 대한 개인의 인식차이에서 돌봄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학 연구들은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적 측면으로 설명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시간 투자의 중요성과 가치를 학력이 낮은 부모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시장노동시간보다 비시장시간의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하는 선호체계를

갖고 있을 수 있다(Sayer et al., 2004b; Guryan et al., 2008). 자녀 돌봄은 사회적 규범에 강하게 종속되는 행위이다.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규범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집중적인 어머니 역할(intensive mothering)’ 이데올로기로 설명할 수 있다(Cha & Song 2016; Hays, 1996; 김소영 · 진미정, 2016).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자녀 발달에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이며(sustained), 집중적인(intensive)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규범을 수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Altintas, 2015; Bonke & Esping-Andersen, 2011; Craig, 2006b; Folbre, 2008; Hays, 1996; Lareau, 2003 Sayer et al., 2004b).

Lareau(2003)는 계층 간 문화적 차이를 바탕으로 계층 간에 자녀 돌봄 차이를 설명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의 부모는 자녀의 발달을 고무하고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여가활동 등을 통하여 자녀의 재능을 기르기 위한 의도로 자녀 돌봄에 참여한다. 이는 “집중돌봄(concerted cultivation)”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집중돌봄은 부모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모와 노동계층의 부모는 자녀 돌봄을 “자연스러운 성장(natural growth)”으로 간주하여 부모는 안전과 음식 등의 기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Reay, 2000; Lareau, 2003). 돌봄시간 차이를 양육방식에 대한 계급적 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Lareau의 이론은 성중립적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행위는 남성이나 여성에서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이 이론에 의하면 아동의 문화

적 자본을 축적하거나 인지 기술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돌봄에는 고학력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모의 교육수준은 발달적 돌봄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Altintas, 2015).

이에 더해 고학력의 부모들은 자녀 돌봄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대체하는 것이 스스로 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낮다고 여긴다(Gimenez-Nadal & Molina, 2013; Hallberg & Klevmarken, 2003). Kimmel & Connelly(2007)는 고학력, 고소득의 부모가 높은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 돌봄시간을 소비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구에서 이루어진 종단연구들은 무급노동에서 성별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Fisher et al., 2007; Guryan et al., 2008). 이는 과거에 비해 남성의 자녀 돌봄 참여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학력 남성에서 강하다(Cha & Song, 2016). 고학력의 남성은 더욱 성평등한 태도를 지닐 수 있고, 보다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 자녀 돌봄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Craig & Mullan, 2011; Hofferth, 2003; Lachance-Grzela & Bouchard, 2010). 또한 교육수준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 돌봄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남성의 자녀 돌봄시간은 여성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남성과 자녀 돌봄시간을 공유하려고 배우자가 더 많은 돌봄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자녀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Altintas, 2015; Bonke & Esping-Andersen, 2011).

국외에서는 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Bianchi, et al., 2004; Bonke & Esping-Andersen, 2009; England, & Srivastava, 2013; Guryan et al., 2008; Sayer et al., 2004b). Bianchi과 그의 동료들은 (2004)은 부모의 물질적, 시간적 투자 및 행동적 특성 등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대학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는데, 연구결과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은 하루에 평균 26분 이상, 남성은 23분 이상 자녀 돌봄시간을 사용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영향력은 자녀수나 연령, 유급노동 시간 등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Guryan et al.(2008)은 2003-2006 American Time Use Surveys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대학교육 이상을 받는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그 이하인 여성보다 주당 4.5시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고학력의 부모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취업상태나 성별, 자녀 수, 결혼지위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 차이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14개국의 시간자료를 사용하여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녀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교육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Sayer와 동료들의(2004b)의 국가 간 비교 연구도 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교육수준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90년대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에서 각각 수집된 시간사용 자료를 활용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장 약한 자유주의 국가인 캐나다에서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욱 관대한 가족정책을 지원하는 노르웨이와 독일에서도 고학력 여성은 자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가별 가족정책이나 경제적 지원 차이보다 고학력 여성들 사이의 부모

역할에 대한 규범이 더욱 강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England, & Srivastava(2013)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녀양육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임금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임금수준에 따른 차이가 아닌 자녀 양육에 대한 문화적 개념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연구자들은 남성의 돌봄시간은 본인의 교육수준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교육수준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남녀의 교육수준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여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남성은 자신과 비교하여 여성의 교육수준이 같거나 더 높을 때 더 많은 자녀 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Bonke & Esping-Andersen(2009)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그들은 동질혼이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학력의 동질혼 부부일 경우 더욱 많은 자녀 돌봄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학력과 부부의 동질혼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과 상반되게 Jutta & Katharina(2006)의 국가간 연구는 자녀 돌봄시간을 설명함에 있어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연령, 결혼지위 등의 사회인구학적 차이나 고용지위는 자녀 돌봄시간에 대해 부분적인 설명력만을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의 9개국의 유자녀 여성들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어린 자녀의 연령 변수가 자녀 돌봄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전일제 여부의 고용지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수들의 설명력은 크지 않았고, 자녀 돌봄시간의 차이는 자녀 돌봄에 대한 문화적

차이나 국가 간 정책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의 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자녀 돌봄시간의 하위 범주에서 아동의 발달이나 교육과 관련된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다(Criag, 2006b; England, & Srivastava, 2013; Gimenez-Nadal & Molina, 2013; Kalil et al., 2012). Criag(2006b)는 오스트레일리아의 Bureau of statistics time-use survey 1997을 사용하여 자녀 돌봄의 하위 범주에 사용된 하루 시간을 측정했다. 연구결과, 부모 모두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신체적 돌봄이나 발달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변수는 여성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는데, 고졸여성(no post-school qualifications)에 비교하여 고졸 이상의 여성은 하루에 평균 20-40분가량 추가적으로 신체적 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적 돌봄에 대한 높은 투입 차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는데, 학·석사 학위를 가진 부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발달적 돌봄활동에 할애했다. 또한 가사노동시간을 함께 분석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유급노동시간과 자녀 돌봄시간의 증가는 가사노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보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Gimenez-Nadal & Molina(2013)는 영국과 스페인 2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 돌봄시간을 기본적(basic) 돌봄, 교육적(educational)돌봄, 감독적(supervisory)돌봄 3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며, 교육적 돌봄이 특히 자녀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교육적 돌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여성의 교육수준은 두 국가 모두에서 남성의 교육적 자녀 돌봄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스페인의 경우에 한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여성의

교육적 돌봄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확인했다. 즉, 부부의 교육적 돌봄시간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부부는 배우자가 교육적 돌봄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본인도 더욱 많은 시간을 교육적 자녀 돌봄시간에 사용하는 것이다. Kalil, Ryan, & Corey(2012)은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의 총량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육수준과 자녀 연령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것을 확인했다. 고학력여성은 영유아 자녀에는 기본적 돌봄과 놀아주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6-13세 아동에는 관리활동(management Activity)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자녀가 학령기인 경우 교육수준 간 차이가 가장 컸다. Bonke & Esping-Andersen(2009) 연구자들은 교육적 동질혼 변수가 자녀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돌봄시간을 발달적, 비발달적 돌봄시간으로 구분하여 검토했다. 높은 교육수준은 발달적 돌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비발달적 돌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의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근래에는 국내에서도 자녀 돌봄시간을 독자적 영역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을 확인한 실증연구가 시작되었다. 주은선은 전일제 임금노동자인 맞벌이 부모의 유급노동, 자녀돌봄, 여가에 대한시간 배분을 젠더와 학력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고학력일수록 부모의 시간 배분에서 돌봄시간 비중의 젠더격차는 감소했고 학력 증가는 남녀 모두의 자녀돌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젠더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 김소영, 진미정 (2016)은 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다양한 설명변수의 영향력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년, 2009년, 2014년 시간일지를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2014년 주중, 2004년과 2014년에 주말의 아버지의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주중에는 전문대이상인 부모와 비교하여 부모가 고졸이하인 가구에서 아버지의 자녀 돌봄시간이 하루 약 22분 정도 짧았고, 2014년 주말에는 아버지만 전문대이상이고 어머니는 고졸이하인 가구의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약 39분 짧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집중적인 어머니역할 규범을 수용하려는 고학력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자녀 돌봄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송유진(2011)는 시간사용자료를 사용하여 1999년과 2009년의 변화 추이와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에게 투입하는 시간이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이 증가했으며, 특히 고학력부모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특히 미취학 자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돌보기와 놀아주기에 투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취학 자녀의 경우는 공부 봐주기 시간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탐수적 연구이기 때문에 변수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은·권혁주(2013)는 보육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는데, 연구의 결과, 교육수준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여성의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며 보육서비스 이용자로 분석대상을 한정시킨 모델에서도 이러한 영향은 지속되었다. 주은선(2014)의 연구는 성별에 대한 교육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더욱 많은 돌봄시간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성별격차는 고학력일수록 감소했고, 주요 활동시간 중 돌봄시간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했다. Cha & Song (2016)은 한국 아버지의 자녀 돌봄시간에 대해 교육과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성

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돌봄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성의 교육수준의 정적 영향은 유지되었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과 돌봄시간이 남성의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확인했다. 주은선·김사현·김민성(2014)은 미취학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서 돌봄시간에 대한 세부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들은 주행동으로만 이루어진 돌봄시간을 ‘좁은 의미의 돌봄시간’으로, 동시행동과 부수적으로 수행된 행동을 ‘넓은 의미의 돌봄시간’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는데,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교육수준이 높아질 때, 두 가지 돌봄시간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소득, 경제활동 상태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영향력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자녀 돌봄시간의 총량뿐 아니라, 돌봄시간의 하위범주를 구성하여 발달에 관련된 돌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노혜진(2014)은 Bonke & Esping Andersen(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적 동질혼 변수와 발달적 돌봄을 포함한 돌봄시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력 동질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향혼은 자녀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학력 동질혼의 경우에도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질혼 변수의 영향력은 다소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학력 동질혼은 자녀 돌봄시간과 미취학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을 증가시키고 취학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모형과 발달돌봄에 대한 분석 모형에서도 동질혼 변수의 영향력은 유사하였는데, 고학력 동질혼은 물론 저학력 동질혼의 경우에도 미취학자녀에 대한 발달돌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저학력 동질혼의 정적 영향을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직접 돌봄을 증가시키면서 발생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은주·김진옥(2016)은 총 돌봄시간과 상호작용시간의 비율에 따라 돌봄시간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계층적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자녀 연령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0-2세 자녀가구에서 교육수준은 주로 총 돌봄시간이나 기본적인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의 부모는 신체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이 저학력의 부모에 비해 더 많았다. 반면 3-5세 자녀가구에서는 고학력의 아버지는 돌봄시간의 양도 적고 상호작용시간의 비율도 낮은 외주형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돌봄시간의 총량, 발달적 돌봄시간의 총량에 대한 정적 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수준과 돌봄시간, 발달적 돌봄시간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자녀에 대한 발달적 투자는 자녀의 인적자본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발달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돌봄의 범주에서 발달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고려되는 발달돌봄시간을 하나의 범주로 구성하여 이러한 행위에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가구 특성이나 부모의 나이, 임금 수준 등의 개인 특성 등,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통제했을 때에도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자녀 돌봄시간의 범위에 대해 다수의 국내선행연구가 주행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보다 넓은 범위의 돌봄 행동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실제 부모들이 제공하는 자녀 돌봄시간의 총량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돌봄에서 발달적 돌봄시간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발달적 돌봄은 자녀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반영하며(Blair & Hardesty, 1994), 자녀의 결과적 측면에 더욱 강한 관계를 갖는다(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 Sayer et al., 2004a). 셋째, 분석 대상의 자녀의 연령을 기존 선행연구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미취학자녀나 영유아 자녀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을 모두 분석한다. 한국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투자는 어린 자녀에 국한되지 않기에, 학령기의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제 4 절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교육수준 이외에도 개인의 특성이나 가구 특성 등은 자녀 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으로 성별, 고용상태, 소득 기여도, 부모의 연령이 포함되며, 가구특성으로는 가구소득, 자녀의 수나 자녀의 연령이 주로 꼽히고 있다.

1. 개인 특성

(1) 성별

개인 특성에서 성별은 자녀 돌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투자한다는 것이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자녀 돌봄시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자녀 돌봄 시간에서 뚜렷한 젠더 편향을 확인했다(Craig, 2006a; Sayer et al., 2004a). 국내 선행연구도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더 많은 돌봄시간을 할애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송유진(2011)의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시간사용자료를 사용하여 돌봄시간에 대한 성별격차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고용 지위와 무관하게 여성의 돌봄시간은 남성의 돌봄시간보다 길다(Craig, 2006a; Zick & Bryant, 1996). 맞벌이가구의 시간배분에 관한 주은선(2014)의 연구는 젠더가 생산영역의 시간인 노동시간 비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돌봄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2) 임금노동 시간

부모의 고용상태에 따라 자녀 돌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Hallberg & Klevmarken, 2003). 시간제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부모는 전일제인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유급노동 시간은 자녀 돌봄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장시간 근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자녀 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성혜영, 2010).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한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유급노동시간이 늘어난다면 자녀 돌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여성은 전업주부에 비해 자녀를 돌보는 시간 사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yant & Zick, 1996b; Sandberg & Hofferth, 2001). 하지만 여성이 유급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에 비교하였을 때, 자녀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작다(Bianchi, 2000). Nock & Kingston (1988)은 여성이 취업하는 경우, 가사 노동이나 여가를 줄일 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양은 비교적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성혜영(2010)은 취업여성의 근로시간 집단별로 자녀 돌봄시간을 비교한 결과,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적다고 보고한바 있다.

(3) 가구소득과 임금수준

가구소득이나 개인의 임금이 자녀 돌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복잡하다. 임금이 높은 부모는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해, 더 적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할애할 수 있다(Cha & Song, 2016). 하지만 동시에 높은 구매력으로 가사노동을 외주화하여 더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투자할 수 있다(Guryan et al. 2008). 강한나·박혜원(2013)의 연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돌봄시간이 가장 길었고, 남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사회 경제적 자원은 돌봄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우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자녀 돌봄을 적게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돌봄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높아질 때, 개인은 자녀 돌봄을 더 적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Lundberg & Pollak, 1996).

(4) 부모의 연령

부모의 연령, 특히 여성의 연령이 자녀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지는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나이가 많은 부모들은 직장에서의 요구로 자녀와의 시간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고(Hall, 2005; Sayer et al., 2004a; Yeung et al., 2001), 반대로 늦은 나이에 부모가 된 사람들은 부모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있다(Sayer et al., 2004a; Monna & Gauthier, 2008). 연령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뚜렷하게 일관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2. 가구특성

(1) 자녀의 구성

자녀의 특성은 자녀의 부모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 수에 따라 돌봄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많은 돌봄시간을 요구한다(Hallberg & Klevmarken, 2003; Kimmel & Connelly, 2007; Sandberg & Hofferth, 2001). Zick & Bryant(1996)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부모의 돌봄시간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제시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녀 돌봄이 달라지게 된다. 영유아는 신체적 돌봄 등의 기본적 돌봄을 더욱 많이 요구하는 반면, 학령기의 자녀는 신체적 돌봄이 상당히 감소되며 가르치기, 책 읽기 등의 교육적 돌봄이 주요하게 요구된다(Folber & Yoon, 2007; Silver, 2000).

또한 자녀의 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돌봄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돌봄시간은 증가하는 것이다(Hallberg & Klevmarken, 2003; Kimmel & Connelly, 2007; Sandberg & Hofferth, 2001). 한편 Strohschein과 동료들(2008)은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 가정 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즉 부모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감소하지만, 일관적인 양육행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증가할 때 자녀 양육에 대한 자원은 감소하기보다 재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3. 정책적 요인

정책적 요인은 부모의 자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정책은 개인의 시간 배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Jutta &

Katharina, 2006; Sayer et al., 2004b; Sullivan & Gershuny, 2003; 송다영, 2014; 현재은·권혁주, 2013). 공공정책은 개인의 유급노동 시간에는 물론이고(Sullivan & Gershuny, 2003)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Jutta & Katharina, 2006; 현재은·권혁주, 2013). 국내에서도 저출산 현상 심화와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자녀양육지원정책은 크게 서비스, 시간, 경제적 지원으로 나누어진다(홍승아 외, 2014) 서비스 정책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시장화된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특히 여성의 돌봄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등의 자녀양육 시간에 대한 지원은 유급노동으로 인한 시간 제약 완화시켜 돌봄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정 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인정하는 유급휴가 제도라는 점에서 소득 보조로 분류되기도 한다(고제이·고경표, 2017). 경제적 지원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분배 정책으로 대표적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반면, 양육수당은 양육자, 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자녀양육을 직접 수행할 때 제공받게 된다. 양육수당이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한편,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성역할 분리 등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핀란드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 수급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홍승아, 2011). 이러한 양육수당의 특성을 비추어 보면, 양육수당제도는 특히 여성의 자녀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제 1 절 연구가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 돌봄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 돌봄시간이 상이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돌봄시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Sayer et al., 2004; Guryan et al., 2008).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단순히 양적 측면뿐만 돌봄시간의 하위 범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내는데, 특히 고학력의 부모는 교육이나 발달과 관련된 돌봄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시간은 자녀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며, 고학력의 부모일수록 이러한 시간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Bonke & Esping-Andersen, 2011; Craig, 2006b; Gimenez-Nadal & Molina, 2013). 따라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돌봄에서 발달적 돌봄시간 사용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교육수준의 효과는 다른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및 가구특성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확인될 것으로 예측된다(England & Srivastava, 2013; Guryan et al., 2008; Lareau, 2003; Sayer et al., 2004).

한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양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취학 자녀는 학교와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정 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도 지적된 바 있다(Bianchi,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을 분석에 포함하는 이유는 특히 한국의 부모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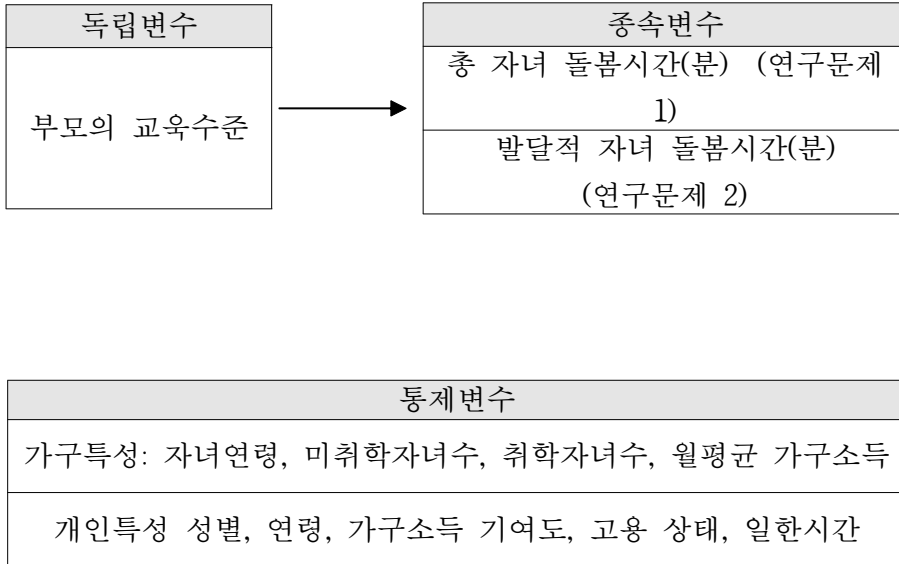
녀의 교육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열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학자녀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⁴⁾ 자녀연령에 따라 부모의 돌봄 양상이나 질적, 양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에 따라, 자녀연령에 따라 모형을 분리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돌봄시간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발달적 돌봄시간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4) 또한 자녀 돌봄과 교육수준의 관계를 살펴본 국외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분석대상을 미취학자녀의 부모로 한정하지 않고, 자녀의 연령을 18세 이하까지 포괄하고 있다(Gimenez-Nadal & Molina, 2013; Guryan et al., 2008; Sayer et al., 2004b) 한편, England & Srivastava(2013)는 16세 이하의 자녀로, Bonke & Esping Andersen(2009)는 15세 이하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모형



〈그림1〉 전체 연구 모형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각종 시간량,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 등 다양한 시간사용 자료는 삶의 질 측정 및 노동·복지·문화 등 정책 수립 및 학문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1999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주기로 2014년까지 총 네 차례 조사되었고,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으로, 이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한 행위를 10분 단위로 기입하는 시간일지를 이틀씩 작성하였다. 1999년에는 전국 약 17,000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 42,973명의 시간일지 85,906부를 수집하였고, 2014년에는 전국 약 12,0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26,988명의 시간일지 53,976부를 수집하였다. 2014년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최신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자녀 돌봄행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있어서 주 행동으로 수행된 돌봄은 물론, 동시행동으로 수행된 돌봄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며, 돌봄의 상세항목이 구분되어 있어 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은 1명 이상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기혼부모로 한정한다. 미성년인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부모로 선정한 이유는 자녀의 연령과 취학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서의 부모의 양육시간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부부와 자녀가 모두 한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은 편부가정이나 이혼가정의 부모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구조의 부모와 생활시간배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연령은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의 자녀로 응답한 경우)와 만 나이를 계산하여,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를 파악할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분거자녀는 물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수 변수를 구성하는데 분석대상 추출과정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후 분석과정에서 영향력을 통제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의 차이 역시 생활시간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말에는 평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 사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취업한 부모의 경우, 평일에는 유급노동시간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일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 요일에 따른 가중치 부여(평일은 5/7, 주말은 2/7의 가중치를 부여)를 적용하고자, 평일과 주말에 각각 하루씩 조사에 응한 가구만을 추출하였다. 2014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최종 응답가구 및 응답가구원은 11,986가구 26,988명 중 18세미만 자녀 존재하면서 부모가 모두 존재하면서 가구주의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는 가구는 3344가구이며,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이거나 배우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6534명이었다. 이 중 요일변수가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평일과 주말 하루씩 조사에 응하고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분석대상은 2539명으로, 최종 분석대상은 2539명으로 전체 표본의 9.4%를,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 표본의 약 38%의 비율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부모가 수행한 자녀 돌봄시간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수행된 자녀 돌봄시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주행동이란 10분 간격의 시간대에 한 가지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을 의미한다. 응답자는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가장 길게 한 행동이나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주된 행동이라고 판단한 행동을 주 행동으로 기입한다. 동시행동이란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주 행동 이외의 행동을 의미한다. 동시행동은 두개의 행동이 병행되는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동시행동으로 인정된다.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행동분류표에서 자녀의 돌봄시간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영역에서 추출하였다.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영역은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자녀 돌봄으로 설정하는 것은 처음 두 개의 항목이다.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는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읽어주기·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 등 5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의 초중고 자녀 돌보기는 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간호하기, 기타돌보기 등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행동과 동시행동의 세부항목은 동일하다. 이들 항목으로 보고된 시간에 평일과 주말의 가중치를 준 후, 더한 총량(분)을 연구문제 1의 종속변수로 정의

한다.

또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녀 돌봄시간을 특별히 자녀의 발달 영역과 관련된 돌봄시간으로 세분화하였다. 자녀의 발달 영역과 관련된 돌봄시간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만 10세 미만 아이 돌봄 항목에서 아이 가르치기와 책읽어주기·놀아주기를,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에서 공부 봐주기를 발달적 돌봄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해 총 돌봄과 마찬가지로 요일별 가중치를 준 후, 이를 연구문제 2의 종속변수인 발달 돌봄시간으로 정의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다. 생활시간조사는 교육수준을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8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교육과정에서 수학여부(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까지 조사하는 등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고등학교 졸업 이하, 2=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3=4년제 졸업 이상, 석사 미만, 4=석사졸업 이상으로 구성된 4가지 범주를 구성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연속형으로 구성하지 않고 범주형으로 구성한 이유는 교육수준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교육년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교육년수 12년)과 대학교 1학년을 끝으로 학업을 중단한 사람(교육년수 13년) 사람은 비록 1년의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년수의 1년의 격차보다 실제 학력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집단간 차이를 더욱 조명하기 위하여 범주형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들도 교육수준을 연속형 변수로 정의하기보다 범주형으로 정의하고 있다(Cha & Song, 2016; Craig, 2006b; Kalil et al., 2012). 분석 모형에서 교육수준은 더미변수로 투입된다.

3. 통제변수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는 가구 특성, 부모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가구 특성과 관련된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가구 내 자녀 중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을 계산하여 투입하였다.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시간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Gimenez-Nadal & Molina, 2013). 가구 내 미취학자녀의 수와 취학자녀의 수는 각각의 변수로 투입하여 자녀 연령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은 기존의 범주형 변수를 평균화 하였고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의 값을 갖는다.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화폐적 투자와 비화폐적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노혜진, 2014) 본 연구에서도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모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고용상태,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도를 투입하였다. 성별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측정된 변수를 남성=0, 여성=1로 조작하여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성별을 돌봄시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 많은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 불평등 이론은 성별이 자녀 돌봄 등 포함한 무급노동 시간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라고 설명하고 있

다(Cha & Song, 2016; Craig, 2006a; Hays, 1996; Sayer et al., 2004a). 연령은 개인의 만 나이를 의미한다. 연령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수의 연구는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반면(England & Srivastava, 2013; Gimenez-Nadal & Molina, 2013; Monna & Gauthier, 2008; 주은선, 2014) 연령이 증가할 때 더 적은 돌봄을 수행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Kalil et al., 2012; Sayer et al., 2004a). 가구소득 기여도는 특히 가구내 노동에 대한 성별불평등을 설명하는 변수로 꼽힌다.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가구소득기여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돌봄시간 등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구소득기여도는 월평균가구소득을 분모로, 월평균 개인소득을 분자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의 범주형 자료를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활용하였다. 고용상태는 종사상지위 변수를 활용하였다. 고용상태는 개인의 시간자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리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전일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 사용할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자영업자나 무급종사자 역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시간 제약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다. 먼저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로 구성하였다. 임금근로자인 경우, 전일제인지 시간제인지 응답한 자료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따라 다시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 근로자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종사상지위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모두 자영업자로 묶고, 무급가족종사자는 그대로 활용하였다. 비취업자는 경제활동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답한 사람을 비취업자로 구성하였다. 고용상태는 더미 변수화하여 전일제를 기준으로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구분	변수 설명 및 측정 방법(단위)
종속변수	
총 돌봄 시간(분): (1)과 (2)의 총합	(1)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항목: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임어주기·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의 총합 (2)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의 초중고 자녀 돌보기 항목: 신체적 돌보기, 공부 봐주기, 간호하기, 기타돌보기의 총합
총 발달 돌봄시간(분): (3)과 (4)의 총합	(3)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중 아이 가르치기와 책임어주기·놀아주기 (4)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의 초중고 자녀 돌보기 항목 중 공부 봐주기의 총합
독립변수	
부모의 교육수준	1=고졸 이하 2=4년제 미만대학 졸업 이상, 4년제대학 졸업 미만, 3=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석사졸업 미만, 4=석사 졸업 이상
통제변수	
자녀 연령	함께 거주하는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세)
미취학 자녀 수	함께 거주하는 만 0-6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 수(명)
취학자녀 수	함께 거주하는 만 7~18세 사이의 취학자녀의 수(명)
월평균 가구소득	조사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을 합한 다음 12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 (최소값 50만원~최대값 750만원)
성별	0=남성, 1=여성
연령	만 나이(세)
가구소득 기여도	월평균 개인소득/월평균 가구소득 ⁵⁾
주당일한시간	주업으로 일한 주당 근로 시간(시간)
고용 상태	전일제/시간제/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비취업

5)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총 12개 범주로 50만원 단위로 범주형 문항으로 측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지난 1년간 귀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의 총량과 발달적 돌봄시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SPSS v.23.0과 Stata.1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다변량 Tobit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Tobit 모형은 시간사용 데이터에 자주 사용되는데, 상당 비율이 0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필연적으로 극심한 중도절단이 있기 때문이다(Breen 1996; Greene 2003). 시간 데이터를 사용할 때, Tobit 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OLS 모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다. 시간자료의 특성상 종속변수가 0의 값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사용연구에서는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한 선형회귀분석보다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한 Tobit 모형이 더 적절하다는 이유로 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Tobit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하고 있다(Folbre & Yoon 2007; Gimenez-Nadal & Molina, 2013; Jutta & Katharina, 2006; Kalil et al., 2012; Sayer et al., 2004a). 그러나 Tobit 모형은 시간 자료에서 특정 활동에 대한 0값을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료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거짓 0’이라

하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1=0, 2=50만원 미만, 3=50~100만원 미만 ...12=500만원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평균 가구 소득 역시 100만원 단위로 범주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이 가구에 소득에 기여하는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을 각 범주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500만원 미만이며,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200~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225/450=0.5$ 로 계산한다. 노혜진(2014)의 연구에서도 아내의 소득비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는 의견이 있다(Stewart, 2009). 이러한 ‘거짓 0’은 실제 비참여자가 아니라 측정 기간의 할당이 고르지 못한 것에서 발생하는 측정의 오류이므로 OLS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인데, 실제로 국내외의 시간사용 연구들은 많은 경우 OLS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Cha & Song, 2016; Craig & Mullan, 2010; 김소영·진미정, 2016; 송유진, 2011; 은기수, 2009; 주은선 외, 2014; 허수연, 2008).

Foster & Kalenkoski(2013)는 자녀 돌봄시간을 분석하는 방식에 있어 Tobit과 OLS를 비교했는데, 시간 자료에서 발생하는 0값은 1일 동안 관측된 자료에 비해 2일 동안 관측된 자료에서는 사례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두 추정 방법의 추정 강도와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다소 상이한 것을 제외하면 결과가 대부분 유사하므로 거짓 0값이 그 자체로 OLS나 Tobit 추정식의 결과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는 2일 동안의 시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tobit 모형을 사용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OLS 보다 Tobit 모형을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회귀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는 부록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 제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일 동안 보고된 돌봄에 대한 하루 평균시간(분)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항상 0에서 1440 사이의 범위를 보이게 된다(24시간 내에서 분 단위의 시간). 좌우 절단을 통제하고 최대우도값을 통해 추정하는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Y_i^* = \alpha_0 + \beta_1 X_i + \beta_2 Z_i + \varepsilon$$

$$Y_i = 0 \text{ if } Y_i^* \leq 0$$

$$Y_i^* = 1440 \text{ if } Y_i^* \geq 1440$$

종속변수를 나타내는 Y 는 자녀 돌봄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간을 대표하는 잠재변수이다. 독립변수인 X 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다. 통제변수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Z_i 는 앞서 서술한 통제 변수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모형은 부모의 개인수준과 가구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부모의 교육수준의 총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의 교육 수준은 고졸 이하가 1036명(40.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인 경우는 616명(24.3%)으로 나타났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석사졸업 미만인 경우는 747명(29.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석사 졸업 이상은 140명(5.5%)으로 가장 낮았다.

성별은 남성이 1260명(49.6%)명, 여성이 1279명(50.4%)으로 여성이 조금 더 많으나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고용상태에 따라, 전일제 임금근로자가 1282명(50.5%)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근로자는 121명(4.8%)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403명(15.9%)이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45명(1.8%)으로 가장 적었다. 비취업자는 688명(27.1%)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외·맞벌이에 대한 변수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인 경우가 1169명으로 46%를 차지했고, 남성외벌이인 경우가 1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7%를 차지했다. 여성외벌이의 경우에는 48명(1.9%), 부부가 모두 비취업 상태인 비취업가구가 35명(1.4%)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응답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0.3세이며, 최저 21세에서 최고 61세까지 연령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났다. 연령에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20대 82명(3.2%), 30대 1048명(41.3%), 40대 1240명(48.3%), 50대 165명(6.5%), 60대 5명

(.2%)으로 대부분 3-4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성년자녀수는 평균 1.74명이었고 가구내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930명(36.6%), 2명인 경우가 1359명(53.5%), 3명인 경우가 230명(9.1%), 4명인 경우가 20명(0.8%)으로 나타났다.

총 가구원수는 평균 3.89명, 표준오차 .0015였다. 가구원수에 대한 추가적인 빈도분석 결과, 가구원수가 3명인 경우는 754명(29.7%), 4명은 1375명(54.2%), 5명은 343명(13.5%), 6명은 59명(2.3%), 7명은 8명(.3%)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분석대상이 3,4인 가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취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경우, 주당 일한시간의 평균 33.92(.0489)시간이었으며 최소 0시간에서 최대 120시간의 관측값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423.97(3.358)만원, 가구소득 기여도는 평균 .492(.008)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
부모의 교육수준	1=고졸 이하	1036	40.8
	2=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616	24.3
	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석사 졸업 미만	747	29.4
	4= 석사졸업 이상	140	5.5
성별	남성(=0)	1260	49.6
	여성(=1)	1279	50.4
고용상태	전일제	1282	50.5
	시간제	121	4.8
	자영업	403	15.9
	무급가족종사자	45	1.8
	비취업	688	27.1
외/맞벌이	맞벌이	1169	46.0
	남성 외벌이	1287	50.7
	여성 외벌이	48	1.9
	비취업가구	35	1.4
	계	2539	100
변수	평균	se	
만나이(세)	40.30	.122	
미성년 자녀 수(명)	1.74	.013	
총 가구원수	3.89	.015	
일한시간 (주당 시간)	33.92	.489	
월평균가구소 득 (만원)	423.97	3.358	
가구소득기여 도	.492	.008	

2.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 비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을 기술통계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표 3>은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총 돌봄시간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총 돌봄시간은 교육수준에 따라 고졸이하(교육수준 1)의 경우 하루 평균 55.57분(94.11)으로 가장 적었고,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4년제 대학 졸업 미만(교육수준 2)의 경우 95.89분(115.1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석사 졸업 미만(교육수준 3)인 경우 80.70분(110.81), 석사 이상(교육수준 4)은 67.82분(96.46)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격차는 고졸이하와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의 격차로 40.32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 이하인 부모에 비해 4년제 미만 대학을 졸업 이상~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의 교육수준인 부모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40분 정도 더 많은 돌봄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총 돌봄시간의 평균은 73.42(105.88)분이었다.

자녀돌봄 시간 평균이 자녀 연령에 따라 상이한지 살펴보기 위해 만 10세를 기준으로 돌봄시간 평균을 확인하였다. 먼저 만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총 돌봄시간 평균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에 따라 고졸이하(교육수준 1)의 경우 하루 평균 47.68분(93.13),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4년제 대학 졸업 미만(교육수준 2)의 경우 88.00분(116.99), 4년제 대학 졸업이상~석사 졸업 미만(교육수준 3)인 경우 73.23분(111.76), 석사 이상(교육수준 4)은 59.67분(96.83)으로 나타났다. 만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총 돌봄시간 평균은 65.64(106.35)분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만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총 돌봄시간 평균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총 돌봄시간 평균 양상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10세 이상에 대한 돌봄 평균은 교육수준에 따른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고졸이하(교육수준 1)의 경우 하루 평균 7.89분(20.17),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4년제 대학 졸업 미만(교육수준 2)의 경우 7.89분(24.82), 4년제 대학 졸업이상~석사 졸업 미만(교육수준 3)인 경우 7.47분(21.82) 석사 이상(교육수준 4)은 8.14분(23.00)으로 나타났다. Y5의 총 평균은 7.78분(22.00)이었다.

〈표3〉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총 돌봄시간 평균

교육수준 \ 돌봄시간	평균 (SD)			N
	미성년자녀	10세 미만	10세 이상	
고졸 이하	55.57 (94.11)	47.68 (93.13)	7.89 (20.17)	1036
4년제 미만 졸업 이상~ 4년제 졸업 미만	95.90 (115.10)	88.00 (116.99)	7.89 (24.81)	616
4년제 졸업 이상~ 석사 졸업 미만	80.70 (110.8)	73.23 (111.75)	7.47 (21.81)	747
석사 이상	67.81 (96.46)	59.67 (96.83)	8.14 (23.00)	140
total	73.42 (105.88)	65.64 (106.35)	7.78 (22.00)	2539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발달적 돌봄시간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성년자녀에 대한 발달 돌봄시간 평균을 살펴보았다. 교육수준에 따라 고졸이하의 경우 발달돌봄 역시, 평균 18.96분(34.29)으로 가장 적었고,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의 경우 37.23분(48.46),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석사 졸업 미만인 경우 30.92분(44.37), 석사 이상은 29.41분(49.37)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격차는 고졸이하와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

상~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의 격차로 18.27분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인 부모에 비해,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4년제 대학 졸업미만인 부모는 평균적으로 하루 18분 정도 더 많은 발달 돌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발달시간 총 평균은 27.49분(42.25)이었다.

10세 미만에 대한 발달 돌봄의 평균은, 교육수준에 따라 고졸이하의 경우(교육수준 1) 16.431분(32.928)으로 가장 적었고,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4년제 대학 졸업 미만(교육수준 2)의 경우 34.994분(47.11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석사 졸업 미만(교육수준 3)인 경우 27.994분(43.026), 석사 이상(교육수준 4)은 25.480분(41.139)으로 나타났다. 총 평균은 24.750분(40.890)이었다. 만 10세 미만에 대한 발달 돌봄시간 평균도 총 돌봄시간 평균에서 확인한 것과 유사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발달 돌봄 평균 시간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발달 돌봄 평균은 역시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평균 2~3분 값을 보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을 기술통계 수준의 비교결과, 고졸 이하의 경우와 비교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평균적으로 더 많은 돌봄시간을 보여 연구 가설과 일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에 대한 돌봄의 경우, 돌봄의 유형에 관계없이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표본에서 포착된 미성년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에서 상당한 양이 만 10세 미만 자녀를 위한 돌봄시간에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돌봄시간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표4〉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발달돌봄시간 평균

교육수준 \ 돌봄시간	평균 (SD)			N
	미성년자녀	10세 미만	10세 이상	
고졸 이하	18.96 (34.29)	16.43 (32.93)	2.53 (10.92)	1036
4년제 미만 졸업 이상~	37.23 (48.46)	34.64 (47.11)	2.59 (16.60)	616
4년제 졸업 미만	30.92 (44.37)	27.99 (43.026)	2.93 (13.93)	747
4년제 졸업 이상~	29.41 (42.96)	25.48 (41.14)	3.93 (16.50)	140
석사 졸업 미만	27.49 (42.25)	24.75 (40.89)	2.74 (13.69)	2539
석사 이상				
total				

제 2 절 가설검증

1.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가구수준이나 개인수준의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첫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큰 범위의 종속변수인 미성년자에 대한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 돌봄시간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2593명을 대상으로 토빗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의 Y1 총돌봄 모형의 값과 같다. 모형의 계수값은 OLS의 계수값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Greene, 1997; Sayer et al., 2004b).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LR = 2610.47, p < .001$).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총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총 돌봄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의 경우에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14.58, $p < 0.0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석사 졸업 미만의 경우 역시 고졸 이하와 비교하여 더 많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18.03, $p < 0.001$). 마

지막으로 석사졸업 이상의 경우에는 고졸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27.20, $p<0.01$).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개인에 비해 그 이상의 교육수준의 개인은 자녀 돌봄시간을 더욱 많이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졸 이하인 기준집단과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통제 변수를 살펴보았다. 우선 가구특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 내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돌봄시간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12.07, $p<0.001$). 이를 해석하면, 가구 내에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이 낮은 경우와 비해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이 높은 경우 돌봄시간을 덜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영유아 자녀의 경우,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돌봄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Gimenez-Nadal & Molina, 2013; Kimmel & Connelly, 2007). 미취학자녀수는 돌봄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한 반면(Coef.=31.75, $p<0.001$) 취학자녀수는 정의 영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월평균가구소득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개인의 경제력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하는 이유는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시간 차이가 실제로 교육수준이 아닌, 임금수준이나 경제력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하는지 통제하기 위함이다(England & Srivastava, 2013). 분석결과 이전의 선행연구와 달리, 월평균가구소득은 자녀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모두 자녀 돌봄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였다(Guryan et al., 2008). 노혜진(2014)의 연구도 부부소득비가 자

녀 돌봄시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시간 차이는 가구의 경제력 차이와 이로 인한 자원 제약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개인특성과 관련된 변수에서 가장 먼저 성별 변수를 살펴보았다. 이론적 예측과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성별은 자녀 돌봄시간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경우 하루에 평균적으로 67분 정도 돌봄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Coef.=67.83, $p<0.001$),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하루에 1시간 10분가량이나 더 많은 돌봄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 시간에 여전히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 나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0.88, $p<0.1$). 부모의 연령이 돌봄시간에 부정적 관계는 국내 선행연구와 부합하지만(Cha & Song, 2016) 부모의 연령과 자녀돌봄시간 정적 영향을 보고했던 국외 선행연구(Gracia & Ghysels, 2017; Zick & Bryant, 1996)의 연구결과와는 반대된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급노동으로부터의 시간 요구가 높거나, 연령별로 자녀 돌봄에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가구소득 기여도는 돌봄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개인이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클수록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돌봄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21.60, $p<0.05$). 이는 가구 내에서 개인의 소득기여도가 협상력으로 작용하여 자녀 돌봄을 포함한 무급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보인다는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다 할 수 있다(Blood & Wolfe, 1960; Hook, 2006). 가구소득 기여도가 남녀의 돌봄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국내 선

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노혜진, 2014; Cha & Song, 2016). 한편 이론적 논의에 따라 시간 제약의 차이로 인해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다른 고용형태는 상대적으로 돌봄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하지만 분석결과 비취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인의 고용상태는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자의 경우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더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다(Coef.=16.62, $p<0.1$). 주당 일한 시간은 돌봄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지만 매우 작은 계수값을 나타냈다(Coef.=-1.31, $p<0.001$). 이러한 결과는 유급 노동을 수행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을 줄이기보다 여가나 다른 무급 노동을 줄이고 자녀 돌봄을 보상한다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는 이론적 예측과 선행연구 결과와 상당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개인적, 가구적 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녀돌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총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자녀 연령은 미성년 자녀로 넓게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돌봄의 시간도, 돌봄시간의 구성도 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돌봄 필요성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Gimenez-Nadal & Molina, 2013; Kimmel & Connelly, 2007). 또한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는 보다 직접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적극적(active) 돌봄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반면, 자녀가 커감에 따라 관리나 감독과 같은 소극적(passive) 돌봄에 시간을 할애하는 등 돌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Del Boca et al., 2015). 따

라서 자녀 연령에 따라 모형을 분리하여 분석하면 교육수준과 돌봄시간의 양상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돌봄시간을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 생활조사자료는 돌봄시간을 만 10세를 기준으로 돌봄시간을 나누어 측정하고 있어, 자료의 특성에 따라 만 10세를 기준으로 모형을 분리하여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만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총 돌봄시간 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LR = 2785.93, p < .001$). 부모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하게 10세 미만 자녀 돌봄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집단과 비교하여 그보다 높은 집단의 경우, 더 많은 돌봄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또한 고졸 이하집단과의 차이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특성과 관련하여 자녀 연령 변수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 = -21.04, p < 0.001$). 가장 어린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10세미만 자녀 돌봄은 적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의 모형과 달리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 모형에서는 미취학자녀($Coef. = 37.95, p < 0.001$)와 취학자녀수($Coef. = 10.70, p < 0.01$)변수 모두 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만 10세 미만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역시 가구의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차이는 소득수준차이에서 기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특성에서 성별은 미성년자 돌봄시간 모형에서와 동일하게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 = 54.33, p < 0.001$). 만 나이는 돌봄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Coef. = -1.84, p < 0.01$). 가구소득 기여도는 이전의 모형에서 부의 영향을 보인 것과 달리, 만 10세미만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고

용상태 변수 역시 만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당 일한시간은 부적 영향력을 보여, 자녀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Coef.=-1.62, $p<0.001$).

이상의 만 10세 미만에 대한 돌봄시간 모형을 살펴본 결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총 돌봄 모형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계수의 크기와 유의도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매우 유사한 결과였다. 앞서 기초통계에서 나타난 돌봄시간 평균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총 돌봄과 만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총 돌봄의 총 평균값을 비교하면, 개인이 자녀 돌봄에 사용한 시간에서 상당부분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돌봄 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연령에 따른 돌봄 양상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은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 모형의 분석결과이다.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LR =767.20 $p<0.001$). 부모의 교육수준은 만 10세이상 자녀 총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전의 모형에서 보인 양상과 다소간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의 모형과 달리 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석사 졸업 미만의 집단 (Coef.=6.44, $p<0.1$)과 석사졸업 이상의 집단의 부모(Coef.=11.81, $p<0.1$)는 고졸 이하의 집단에 비해 더욱 많은 돌봄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 돌봄에 투자

하는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수준 간의 편차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집단 간 교육수준 차이가 커지면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시간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의 모형들과 다르게 자녀 연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취학자녀수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10.43, $p<0.01$). 미취학자녀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돌봄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것에 기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취학자녀수는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돌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Coef.=26.97, $p<0.001$). 월평균 가구소득은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개인특성 변수로 성별은 이전 모형에서와 동일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41.18, $p<0.001$). 만나이의 영향력이 이전 모형에서 만나이가 부적 영향을 미쳤던 것과 상반되게, 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0.96, $p<0.1$). 이러한 결과는 어린 부모는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10세 이상 자녀를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세 이상에 대한 돌봄 시간도 켜져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구소득 기여도와 고용상태, 주당 일한 시간 등 개인의 협상력과 고용시간에 관련된 개인적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자녀 총 돌봄시간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총 돌봄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의 선행연구와 달리, 월평균가구소득으로 투입된 경제적 자원 변수는 자녀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시간 차이가 경제적 제약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자녀 연령에 따라 모형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만 10세 미만에 대한 돌봄 시간의 총합을 분석한 모형은 앞선 모형과 상당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만 10세 이상에 대한 돌봄시간 총합에 대한 모형에서 교육수준은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 돌봄에 투자하는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수준 간의 편차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집단 간 교육수준 차이가 커지면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시간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부모의 교육수준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총 돌봄시간					
	미성년 자녀		10세 미만자녀		10세 이상자녀	
	coef.	t	coef.	t	coef.	t
상수항	154.20*** (20.929)	7.37	219.71*** (26.25)	8.37	-131.57*** (18.68)	-7.04
ref. 고졸 이하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	14.58** (4.50)	3.24	12.66* (5.66)	2.24	3.33 (3.62)	0.92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8.03*** (4.51)	4.00	15.65** (5.65)	2.77	6.44+ (3.64)	1.77
석사 졸업 미만						
석사졸업 이상	27.20** (8.16)	3.33	27.17** (10.23)	2.65	11.81+ (6.49)	1.82
자녀연령	-12.07*** (.64)	-18.88	-21.04*** (.920)	-22.86	-.13 (.52)	-0.24
미취학자녀수	31.75*** (3.68)	8.64	37.95*** (4.26)	8.91	-10.43** (3.90)	-2.67
취학자녀수	3.07 (2.81)	1.09	10.70** (3.72)	2.88	26.97*** (2.27)	11.87
월평균가구소득	0.01 (0.01)	1.15	0.02 (0.01)	1.16	.01 (.01)	1.09
여성	67.83***	10.9	54.33***	6.62	41.18***	8.42

	(6.20)	4	(8.20)		(4.89)	
만나이	-0.88	-1.9	-1.84**	-3.2	.96+	2.47
	(0.45)	5	(.56)	8	(.38)	
가구소득 기여도	-21.60*	-2.2	-15.82	-1.2	-10.94	-1.38
	(9.71)	2	(12.46)	7	(7.92)	
일한시간(주당)	-1.31***	-8.1	-1.62***	-7.8	-.19	-1.45
	(.16)	2	(.21)	4	(.13)	
고용상태 (ref.전일제)						
시간제	-6.10	-0.6	-6.53	-0.5	2.94	0.42
	(9.26)	6	(11.92)	5	(7.04)	
자영업	2.19	0.40	-4.61	-0.6	3.02	0.71
	(5.44)		(7.21)	4	(4.27)	
무급가족종사자	20.10	1.46	19.29	0.94	1.44	0.15
	(13.80)		(20.44)		(9.33)	
비취업	16.62+	1.87	11.52	1.03	9.26	1.29
	(8.87)		(1.24)		(7.16)	
_Sigma	78.72 (1.33)		88.82 (1.73)		48.18 (1.52)	
Log Likelihood	-10488.76		-8274.68		-3769.29	
LR (유의 확률)	2610.47(0.0000)		2785.93(0.0000)		769.20(0.0000)	
N	2539					

주) +p<.1, *p<.05, **p<.01, ***p<.001

2.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발달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자녀 돌봄시간에서 본 연구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발달 돌봄시간에 대한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발달 돌봄시간 차이는 발달 돌봄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자녀에 대한 발달 돌봄 시간에서 교육수준 변수의 영향력은 유의미한지, 또한 총 돌봄시간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부모의 교육수준은 발달적 돌봄시간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가?

<표 6> 미성년자에 대한 총 발달 돌봄시간 모형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LR =1507.80, $p<.001$). 주요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발달 돌봄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총돌봄 모형에서 확인한 바와 유사하게,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더욱 많은 발달 돌봄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의 경우 자녀에게 하루 평균 14분 정도 많은 발달 돌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14.82, $p<0.001$). 기준변수인 고졸 이하와 비교하였을 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석사 졸업 미만인

경우와(Coef.=12.15, $p<0.001$), 석사졸업 이상인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발달적 돌봄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21.92, $p<0.001$).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특성에서 자녀 연령변수는 총 돌봄시간 모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Coef.=-7.42, $p<0.001$). 미취학자녀수는 총 돌봄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달돌봄시간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8.27, $p<0.01$). 취학자녀수는 총 돌봄시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발달 돌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3.97, $p<0.05$). 취학자녀 변수가 돌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관련하여, 부모들은 취학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총 돌봄시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발달과 관련된 돌봄을 더욱 증가시키도록 시간을 조정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특성과 관련해서 성별은 발달 돌봄시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Coef.=18.64, $p<0.001$). 남성에 비해 여성은 더 많은 발달 돌봄을 수행하고 있었다. 만 나이는 부정적 계수값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소득기여도는 총 돌봄 모형에서 부정적 영향을 보인 것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발달 돌봄으로 범주를 제한하였을 때 가구소득기여도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보면, 가구소득 기여도가 가구 내에서 전체적인 돌봄시간에는 협상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돌봄에서는 다른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들은 돌봄에서도 특히 자녀의 발달 돌봄에 대해 높은 참여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고용상태 변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 경우에만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Coef.=-8.97, $p<0.05$). 마지막으로 주당일한시간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Coef.= -0.55, $p<0.001$).

이상을 정리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발달 돌봄시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발달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은 지지되었다. 또한 발달 돌봄 모형의 계수값과 자녀 총 돌봄 모형의 계수값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발달 돌봄이 총 돌봄의 일부라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시간 차이는 상당부분 발달 돌봄시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제약 안에서 자녀 돌봄에 시간을 할당함에 있어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시간에 상당부분을 할애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달 돌봄에 대한 분석에서도 자녀 연령에 따른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만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발달 돌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LR =1633.25 $p<0.001$). 부모의 교육수준은 만 10세 미만에 대한 발달 돌봄시간에도 정의 영향을 미쳤다. 고졸 이하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이상의 교육수준인 집단들은 더 많은 돌봄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졸 이하인 개인에 비해 더 높은 교육수준인 경우 교육수준에 따라 15~20분 내외로 더 많은 발달 돌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연령 변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8.434, $p<0.001$). 미취학자녀수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Coef.=10.152, $p<0.001$), 취학자녀수는 발달 돌봄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월평균 가구소득 역시 발달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성별은 미성년자 발달 돌봄시

간 모형에서와 동일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12.449, $p<0.01$). 만 나이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가구소득 기여도는 통계적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고용상태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모든 범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주당 일한시간은 발달 돌봄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652, $p<0.001$), 일한시간에 따른 발달 돌봄의 감소정도는 앞선 모형들과 유사했다.

마지막으로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발달 돌봄시간을 살펴본다.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LR=293.75, $p<.001$). 부모의 교육수준은 이전 모형과 달리, 석사졸업 이상을 제외하고 만 10세 이상에 대한 발달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석사졸업 이상의 경우 하루 평균 22분 정도 많은 발달 돌봄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22.81, $p<0.1$). 즉, 10세 이상에 대한 발달 돌봄시간은 절대적 양이 많지 않고, 교육수준이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집단은 돌봄시간 자체가 감소하는 학령기에도 여전히 더욱 많은 발달 돌봄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 연령 변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Coef.=-3.56, $p<0.01$). 미취학자녀수 역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Coef.=-18.49, $p<0.05$). 앞선 모형에서와 같이 10세 이상 자녀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제약으로 인한 결과로 예측된다. 취학자녀수가 많을수록 발달 돌봄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Coef.=33.81, $p<0.001$). 월평균 가구소득은 총돌봄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발달 돌봄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성별(Coef.=42.76, $p<0.001$)과 만나이(Coef.=1.65, $p<0.05$)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만 10세 이

상 자녀 총돌봄 모형에서처럼 가구소득 기여도, 고용상태, 일한시간 등의 경제활동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만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은 이전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을 모두 포괄한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분석 모형에서는 총 돌봄시간은 물론 발달 돌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변수의 영향력과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돌봄시간 편차가 발생한다는 Lareau의 이론을 고려할 수 있다. 저학력의 부모는 자녀 양육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발달적 돌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낮게 인식할 수 있다. 반면, 고학력의 부모는 자녀의 인적 자본 향상은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 필요성이 감소되는 시기, 즉 취학연령의 자녀에 대한 발달 돌봄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발달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

	총 발달 돌봄시간					
	미성년 자녀		10세 미만 자녀		10세 이상 자녀	
	coef.	t	coef.	t	coef.	t
상수항	68.09*** (14.40)	4.73	85.32*** (15.23)	5.60	-202.25 (36.72)	-5.51
ref. 고졸 이하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	14.82*** (3.10)	4.79	14.26*** (3.28)	4.34	2.53 (6.88)	0.37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2.15*** (3.11)	3.90	10.27** (3.30)	3.11	9.58 (6.89)	1.39
석사 졸업 미만						
석사졸업 이상	21.92*** (5.54)	3.96	18.62** (5.90)	3.15	22.81+ (11.65)	1.96
자녀연령	-7.42*** (.46)	-15.97	-8.43*** (.517)	-16.32	-3.56** (1.04)	-3.43
미취학자녀수	8.27** (2.44)	3.39	10.15*** (2.50)	4.06	-18.49* (7.52)	-2.46
취학자녀수	3.97* (1.99)	1.99	1.32 (2.15)	0.61	33.81** * (4.44)	7.60
월평균가구소득	.003 (.01)	0.39	.001 (.01)	0.07	.013 (.017)	0.79

여성	18.64*** (4.37)	4.27	12.45** (4.72)	2.64	42.76** * (9.74)	4.39
만나이	-.48 (.31)	-1.5 7	-.74+ (.32)	-2.2 9	1.65* (.74)	2.22
가구소득 기여도	-3.80 (6.71)	-0.5 7	-.85 (7.17)	-0.1 2	-25.19 (15.87)	-1.59
일한시간(주당)	-0.55*** (.11)	-4.9 0	-.65*** (.12)	-5.4 4	-.04 (.27)	-0.14
고용상태 (ref.전일제)						
시간제	-1.10 (6.49)	-0.1 7	-1.25 (6.92)	-0.1 8	2.17 (13.44)	0.16
자영업	-8.97* (3.93)	-2.2 9	-6.22 (4.18)	-1.4 9	-10.45 (9.18)	-1.14
무급가족종사자	2.82 (10.42)	0.27	2.60 (11.985)	0.22	-3.08 (17.75)	-0.17
비취업	7.62 (6.16)	1.24	2.87 (6.53)	0.44	13.64 (14.02)	0.97
_Sigma	50.8 (1.06)		51.37 (1.13)		65.93 (3.83)	
Log Likelihood	-7422.12		-6670.02		-1497.45	
LR (유의확률)	1507.80(0.0000)		1633.25(0.0000)		293.75(0.0000)	
N	2539		2539		2539	

주) +p<.1, *p<.05, **p<.01, ***p<.001

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최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이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연구들은 여전히 돌봄은 무급노동 불평등이나 여성의 시간압박과 관련한 논의가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자녀 돌봄시간을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적 특성 중에서 특히 교육수준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 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발달과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발달적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분석 대상의 자녀 연령을 미성년자녀로 모두 포함하였지만 자녀 연령에 따라 필요한 돌봄시간이나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녀연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시간이라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토빗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 돌봄시간(총 돌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준집단인 고졸 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그 보다 높은 교육수준의 경우에 더욱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돌봄시간을 설명하는

경쟁적 이론들, 가용시간이론, 상대적자원이론, 성역할 이론을 바탕으로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가용시간이론의 주요한 변수인 유급노동시간은 자녀돌봄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고용상태 변수는 비취업자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상대적 자원이론에서 부부간의 협상력으로 활용되는 가구소득기여도 역시 부적 영향을 미쳤고, 성역할 이론의 주요 변수인 성별은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은 더욱 많은 돌봄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경쟁적 이론들은 모두 돌봄시간에 일정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총 돌봄시간을 자녀 연령에 따라 모형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만 10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은 전체모형의 결과와 상당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돌봄에서는 집단 교육수준 차이가 커질 때, 즉 부모의 교육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에만 돌봄시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이 만 10세 이하 자녀에 비해 다소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돌봄시간에 자녀의 발달과 더욱 강한 관계를 갖는 발달적 돌봄 시간에 교육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발달 돌봄시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발달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은 지지되었다. 또한 발달 돌봄 모형의 계수값과 자녀 총돌봄 모형의 계수값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발달 돌봄이 총 돌봄의 일부라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시간 차이는 상당부분 발달 돌봄시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달돌봄에 대한 모형에서도 자녀 연령에 따라 돌봄 양상의 차

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10세 미만 자녀와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와 비교하여 더 높은 경우, 10세 미만 자녀에 대해 더 많은 돌봄시간을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발달돌봄에서도 나타났다. 만 10세 미만 자녀의 총 돌봄과 발달돌봄 모형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은 미성년 자녀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계수의 크기와 유의도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이 돌봄 시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만 10세 이상의 자녀 돌봄시간 모형 결과는 이전의 모형에서 보인 양상과 다소간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전의 모형과 달리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모든 집단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고 교육수준의 격차가 큰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의 부모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돌봄시간을 사용했다. 특히 만 10세 이상 자녀에 대한 발달 돌봄 시간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은 석사수준 이상의 부모에서만 유지되어, 고졸 이하와 비교하여 더 많은 돌봄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즉, 10세 이상에 대한 돌봄시간은 교육수준별 편차가 크지 않지만 부모의 교육수준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집단은 돌봄시간 자체가 감소하는 학령기에도 여전히 더욱 많은 돌봄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돌봄의 범주에 따라 총 돌봄시간과 발달적 돌봄으로 구분하고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시간 증가분은 상당부분 발달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함의

기존의 무급노동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교육수준은 성별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특히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설명되어왔다.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은 유급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득 수준 역시 향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무급노동에 대한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자녀 돌봄시간은 무급노동시간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어 성별 불평등이나 취업여성의 이중부담의 논의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돌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분석한 결과, 오히려 교육수준은 개인의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녀 돌봄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은 물론 가사노동과도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결정요인도 다르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시간을 분리된 모델로 검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임을 확인하는 결과였다.

또한 무급노동을 설명하는 경쟁적 이론들의 주요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비록 성별이 자녀 돌봄 시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교육수준은 성별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같은 성별 내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돌봄에 투자하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용시간이론의 유급노동시간변수와 상대적자원이론의 가구소득기여도 등의 변수도 일정부분 돌봄시간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제거하지 못했다.

한편, 발달적 돌봄시간을 분리하여 분석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따라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기존의 국내연구는 돌봄시간의 범주를 구분적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돌봄이 자원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의 결과적 측면과 더욱 강한 상관을 갖는 돌봄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발달적 돌봄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분석한 결과, 총 돌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던 몇몇 통제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편차는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돌봄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의 자녀 연령을 더욱 확대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돌봄시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미취학 아동이나 영유아 아동에 한정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돌봄에 사용되는 시간이 다소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꾸준히 돌봄 시간을 투자한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녀 돌봄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시기에도 석사 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는 발달돌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1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돌봄시간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 실천적 함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개인적 효용 증대를 위한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혜택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아동은 공공재이며(Folbre, 1994)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강조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지금껏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층 간 불평등을 지적하는 논의는 주로 경제적인 비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자녀를 기르는 일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의 투입 필요로 한다. 장기적으로 부모의 돌봄시간 차이가 자녀의 학업성취나 계층 이동 등의 결과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 사회계층의 대물림을 야기할 수 있다.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부모자녀의 긍정적 관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섭 · 이용교, 2009).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학업성취도간의 정적 관계는 부모의 돌봄시간 격차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고학력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적극적 가치를 부여하며,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적 기대수준을 갖고(박창남 · 도종수, 2005) 이러한 특성들은 자녀 돌봄시간으로 표출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지위가 전달되는 과정

에서 부모의 직접적 돌봄이 자원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녀 돌봄이 일정 계층 이상만 소비할 수 있는 사치재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더욱 많은 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현상은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권⁶⁾의 관점에서 고학력의 부모는 낮은 교육수준의 부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는 더욱 많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한 시간과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의 주된 이용자는 정규직, 전문직 등의 고학력 부모이다. 육아휴직의 실제 사용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노동현실과 낮은 소득 대체율, 교육수준에 따른 정책과 제도 혜택의 편차, 수급의 사각지대 문제(고제이·고경표, 2017)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보편적인 제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2018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고된 0세~5세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론, 유급노동으로 인한 시간 제약을 완화하여 자녀 돌봄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고학력의 부모가 더욱 많은 돌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고학력의 부모가 상대적으로 더욱 시간압박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인은 유급 노동과 무급노동, 여가 등 다양한 선택 사이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시간 갈등을 겪

6) 부모권이란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권이라고 할 때,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부모권으로 정의한다(윤홍식, 2006).

는다(손문금, 2004; 차승은, 2010; 2015).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욱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Nomaguchi et al., 2005; Nomaguchi, 2012; 차승은, 2015).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많은 돌봄시간으로 인해, 특히 취업부모의 경우에 더욱 강한 시간압박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학력의 부모들은 보육 서비스가 스스로 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체재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Gimenez-Nadal & Molina, 2013; Hallberg & Klevmarken, 2003) 이러한 특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시에, 자녀돌봄시간에 활용할 시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로시간제 등의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포괄적 보장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의 부모는 돌봄시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사회계층적 특성 차이에 따라 자녀 돌봄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Reay, 2000; Lareau, 2003). 즉,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시간 차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약하게 인지하는 것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부모교육은 부모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에게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함으로써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이재림 외, 2013).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발달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은 어머니는 부모 역할수행정도가 높아졌으며, 자녀발달에 대한 정보는 자녀 발달의 현재 및 미래의 발

달적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연구결과(Massengill, 2004)를 고려하면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직접적인 돌봄시간 이외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여가나 식사 등의 활동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자녀의 발달과 돌봄시간에 대한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가 스스로 돌봄 시간이라고 인지하여 응답한 시간에 한정지어 분석했다. 하지만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시간 자원을 반드시 연구에서 정의된 돌봄시간에 국한할 수 없는 것이, 아동의 발달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발달이나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지만 보다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는 생활만족도나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돌봄 시간이라고 인지하지 않아도 다른 행동을 하며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자료가 제공하는 시간 중, 자녀를 위한 이동시간을 돌봄시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자녀를 위한 이동시간은 상당 부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상당한 양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고려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의 누락으로 인한 편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책적인 특성들, 육아 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자녀 돌봄에 사용할 시간 자원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4 생활시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변수들을 연구

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관측하지 못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변수 누락으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 돌봄 시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녀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돌봄에 대한 태도나 훈육방식 특성과 같은 질적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돌봄과 관련한 질적 측면을 포착해야 하는 이유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이나 장기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양의 돌봄을 제공될 때, 보다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방식보다 자율적이며 애정에 기반한 돌봄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김희수, 2004; 소선숙 외, 201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돌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돌봄시간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장기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돌봄의 양적 차이와 자녀의 장기적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간자료와 자녀의 성취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종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guiar, & Hurst, (2007), Measuring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3).
- Altintas, E. (2015) Educational differences in fathers' time with children in two parent families: Time diary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Family Science*, 6(1), 1-9
- Atkinson & Huston, (1984). Sex role orientation and division of labor early in marriage. *J. Pers. Soc. Psychol.* 46, 330-45.
- Bartley, S., Blanton, P., & Gilliard, J. (2005). Husbands and Wives in Dual-Earner Marriages: Decision-Making, Gender Role Attitudes,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Equity. *Marriage & Family Review*, 37(4)
- Baxter, J., Hewitt, B., & Western, M. (2005). Post-familial families and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ur.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6(4), 583-X.
- Becker, G.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Cambridge
- Bianchi, M. Suzanne, John P. Robinson, & Melissa A. Milkie (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ianchi, S. M. (2000), "Maternal Employment and Time with Children: Dramatic Change or Surprising Continuity,"

Demography 37(4), 401-414.

- Bianchi, S., Cohen, P., Raley, S., & Nomaguchi, K. (2004). Inequality in parental investment in child-rearing Expenditures, time, and health. In *Social Inequality* (pp. 189-219). Russell Sage Foundation.
- Bianchi, S., Milkie, M., Sayer, L., & Robinson, J.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ittman, M., England, P., Sayer, L., Folbre, N., &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 Blair, S. L., & Hardesty, C. (1994).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well-being of fathers and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Men’ ’s Studies* 3, 49-68.
- Blair, S. L., & Lichter, D. T. (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Gender Segregation of Housework Among American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Blau, F.D., Kahn, L.M. & Waldfogel, J. (2000). Understanding Young Womens ’ Marriage Decisions: The Role of Labour and Marriage Market Conditions’ ,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3(4): 624-47.
- Blood, & Wolfe. (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family living*, Glencoe, Ill., Free Press.
- Bonke, J., & Esping-Andersen, G. (2009), Parental Investments in Children: How Educational Homogamy and Bargaining Affect Time Allocation, *European Sociology Review* 10(20),

1-13.

- Bonke, J., & Esping-Andersen, G. (2011). Family Investments in Children: Productivities, Preferences, and Parental Child Car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1), 43-55.
- Breen, R. (1996). *Regression models: Censored, sample selected or truncated data*.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rines, J.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Brooks-Gunn, Jeanne, Han, Wen-Jui, & Waldfogel, Jane. (2002).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3(4), 1052-72.
- Bryant, W. K., & Zick, C. D. (1996a). Are we investing less in the next generation? Historical trends in time spent caring for childre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3-4), 365-392.
- Bryant, W. K., & Zick, C. D. (1996b).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1), 227-237.
- Bryant, W. Keith, & Zick, Cathleen D. (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1), 227-37.
- Cabrera, N. J., Hofferth, S. L., & Chae, S. (2011). Patterns and predictors of father-infant engagement across race/ethnic group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6(3), 365-375.
- Cha, S. E., & Song, Y. J. (2016). Time or Money The Relationship

- Between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Contribution, and Time with Children Among Korean Fathe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4.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nnelly R, & Kimmel J (2009) Spousal influences on parents' non-market time choices. *Rev Econ Household* 7:361-394
- Craig, L (2006a).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 Society*, 20(2), 259-281.
- Craig, L. (2006b). Parental education, time in work and time with children An Australian time-diary analysi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4), 553-575.
- Craig, L. (2007). How Employed Mothers in Australia Find Time for Both Market Work and Childca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1), 69-87.
- Craig, L., & Mullan, K. (2011). How Mothers and Fathers Share Childcare A Cross-National Time-Use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834-861.
- Davis, S., & Greenstein, T. (2004). Cross-National Variation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260-1271.
- Deding, M., & Lausten, M. (2006). Choosing between his time and her time: Paid and unpaid work of Danish couples.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3(1), 28-48.
- Del Boca, D., Flinn, C., & Wiswall, M. (2014). Household Choices

- and Child Development.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1(1), 137.
- England, P., & Strivastava, A. (2013). Educational differences in US parents' time spent in child care: The role of culture and cross-spouse influence. *Social Science Research*, 42(4), 971-988.
- Ferree, Myra M. (1990) Beyond Separate Spheres: Feminism and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66-84.
- Fisher, K., Egerton, M., Gershuny, J., & Robinon, J. (2007). Gender convergence in the American Heritage
- Folbre & Bittman, (2004).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Vol. 2). Taylor & Francis.
- Folbre, (2008). *Valuing Children : Rethinking the Economics of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 Folbre, N. (1994). Children as public goods. (The Economic Support of Child-Raising).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86-90.
- Folbre, N., & Yoon, J. (2007). What is child care, Lessons from time-use surveys of major English-speaking countrie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5(3), 223-248.
- Foster G, & Kalenkoski C (2013) Tobit or Ols? An empirical evaluation under different diary window lengths. *Appl Econ* 45:2994-3010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 751-767
- Gimenez-Nadal, J., & Molina, I. (2013). Parents' education as a

- determinant of educational childcare tim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6(2), 719-749.
- Godwin DD. (1991) Spouses' time allocation to household work: a review and critique. *Lifestyles, Fam. Econ. Issues* 12:253-94.
- Goldscheider, Frances, Bernhardt, Eva, Lappegård, Trude, Sullivan, Oriel, Billari, Francesco C, & Altintas, Evrim. (2014). Fathers' Changing Contributions to Child Care and Domestic Work in Very Low-Fertility Countries. *Journal of Family Issues*, 35(8), 1048-1065.
- Gracia, & Ghysels. (2017). Educational inequalities in parental care time: Cross-national evidence from Belgium, Denmark,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Social Science Research*, 63, 166-180.
- Greene, W. H. (2003). *Econometric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Greenstein, T. (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3), 585-595.
- Greenstein, T.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322-335.
- Guryan, J., Hurst, E., & Kearney, M. (2008).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3), 23-46.
- Hall, S. S. (2005). Change in paternal involvement from 1977 to 1997: A cohort analysi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4, 127-139.

- Hallberg D, & Klevmarken A (2003) Time for children: a study of parent' s time allocation. *J Popul Econ* 16:205-226
- Hango, D. (2007). Parental investment in childhood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Can greater parental involvement mediat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Social Science Research*, 36(4), 1371
- Haveman, R., & Wolfe, B. (1995).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Attainments: A Review of Methods and Find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4), 1829-1878.
- Hays, Sharon. (1998).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 Hochschild, A., & Machung, A.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ew York: Viking.
- Hofferth, S. (2003). Race/ethnic differences in father involvement in two-parent families: Culture, context, or economy? *Journal of Family Issues*, 24(2), 185-216.
- Hook, J. (2004). Reconside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corporating Volunteer Work and Inform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1), 101-117
- Hook, J.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 Jutta M. Joesch and C. Katharina Spiess(2006). European mothers' time spent looking after children -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cross nine countries
- Kalenkoski C, Ribar D, Stratton L (2005) Parental childcare in single parent, cohabiting, and married couple families: time-diary evi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Am Econ*

Rev 95:194-198.

- Kalil, A., Ryan, R., & Corey, M. (2012). Diverging Destinies
Maternal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al Gradient in
Time With Children. *Demography*, 49(4), 1361-1383.
- Kamo, Yoshinori. (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200.
- Kimmel, Jean, & Connelly, Rachel. (2007). Mothers' Time Choices:
Caregiving, Leisure, Home Production, and Paid Work.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3), 643-681.
- Kimmel, Jean, & Connelly, Rachel. (2009) Spousal influences on
parents ' non-market time choices. *Rev Econ Household*
7361-394.
- Lachance-Grzela, M., &Bouchard, G. (2010). Why Do Women Do
the Lion' s Share of Housework? A Decade of
Research. *Sex Roles*, 63(11), 767-780.
- Lamb, M. E., Pleck, J. H., Charnov, E. L., & Levine, J. A. (1985).
Paternal behaviour in humans. *American Zoologist*, 25,
883-894.
- Lareau, Annette. (2002). Invisible inequality Social class and
childrearing in black families and white
families.(Abstra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5), 747.
- Lundberg, Shelley, Pollak, Robert A., (1996). Bargaining and
distribution in marriag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0, 139-158.
- Massengill, D. (2004). Do Parents Benefit? Perspectives of
Low-Income Parents Who Received a Free Early

- Readiness Program for Their Chil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1(3), 179-185.
- Mayer. S. E.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kie, M. A., Raley, S. B., & Bianchi, S. M. (2009). Taking on the second shift: Time allocations and time pressures of US parents with preschoolers. *Social Forces*, 88(2), 487-517.
- Monna, B., & Gauthier, A. (2008). A review on the literature on the soci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parental tim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9, 634-653.
- Nock, S. L., & Kingston, P. W. (1988). Time with children: The impact of couples' work-time commitments. *Social Forces*, 67(1), 59-85.
- Nomaguchi, Kei M., Milkie, Melissa A., & Bianchi, Suzanne B. (2005). Time Strai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Differ? *Journal of Family Issues*, 26(6), 756-792.
- Oliver, J. I. (1998). *Class, gender, and the division of domestic labour in dual-earner households* (Order No. MQ30690).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 Pleck, J. H. (1997). Paternal involvement: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66-103). Hoboken, NJ: John Wiley. Press.
- Reay, D. (2000). A Useful Extension of Bourdieu's Conceptual Framework: Emotional Capital as a Way of Understanding Mo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48(4), 56

- Sandberg, John F., and Sandra L. Hofferth. (2001). "Changes in Children's Time with Parents: United States, 1981-1997. *Demography* 38:423-36.
- Sayer, Liana C., Bianchi, Suzanne M., & Robinson, John P. (2004a). Are parents investing less in children Trends in mothers' and fathers' time with children (1).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
- Sayer, Liana C., Gauthier, Anne H., & Furstenberg, Jr., Frank F. (2004b).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with Children: Cross-National Vari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152-116.
- Shelley, K. J. (2005). Developing the American time use survey activity classification system. *Monthly Labor Review*, 128(6), 3-15.
- Shelton, B. A. & John, D.(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pp.299-322.
- Shelton, Beth Anne. (1990).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1(2), 115-35.
- Silver, C. (2000). Being there: The time dual-earner couples spend with their children. *Canadian Social Trends*, 57, 26-30
- Snow, C. (2006). What counts as literacy in early childhood? In K. McCartney & D. Phillips (Eds.), *Handbook of early child development* (pp. 274-294).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Strohschein, Lisa, Gauthier, Anne H., Campbell, Rachel, &

- Kleparchuk, Clayton. (2008). Parenting as a Dynamic Process: A Test of the Resource Dilutio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3), 670-683.
- Sullivan & Gershuny, (2001), Cross-national changes in time-us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2), 331-347.
- Sullivan, & Gershuny. (2013). Domestic outsourcing and multitasking: How much do they really contribute, *Social Science Research*, 42(5), 1311-1324.
- UN Economic & Social Affairs (2005), Guide to Producing Statistics on Time Use: Measuring Paid and Unpaid Work, United Nations.
- West, C., & Zimmerman, D. (1987).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1(2), 125-151.
- Yeung, W., Sandberg, J., Davis-Kean, P., & Hofferth, S. (2001). Children's Time With Fathe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36-154.
- Zick, & Bryant. (1996). A New Look at Parents' Time Spent in Child Care: Primary and Secondary Time Use. *Social Science Research*, 25(3), 260-280.
- Zick, Bryant, & Österbacka. (2001). Mothers' Employment,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mediate Child Outcomes. *Social Science Research*, 30(1), 25-49.
- 강학중 · 유계숙 (2005). 맞벌이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연구 : 억제 및 촉진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7(3), 187-219.
- 고은주 · 김진옥 (2016).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 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 보건사회연구, 36(4), 35-62.
- 고제이 · 고경표 (2017).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소영 · 진미정 (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5), 1-19.
- 김수정 ·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승권. (2010).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건 · 복지 Issue&Focus, 68, 1-8.
- 김영미 (2014). 복지국가 제도와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1(1), 143-177.
- 김정석 (2005). 한국 중년 남녀의 무급노동내용과 시간량. 한국인구학, 28(1), 173-201.
- 김진욱 (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220.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85-117.
- 김희수 (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노혜진 (2014). 부모의 교육적 동질혼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41(4), 181.
- 박혜경 (2008). 중산층 기혼여성의 경험 세계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성격과 가사노동 가치인식. 페미니즘 연구, 8(2), 159-196.
- 박창남 · 도종수. (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성혜영 (2010). 연장근로에 따른 아동돌봄 형태와 일 가족 갈등: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79-87.

- 소선숙 · 송민경 · 김청송.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 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 손문금 (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시간의 성격. 통계청 「통계 연구」 2003년 가을(제8권 제2호), 23-58
- 손문금 (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페미니즘 연구, (5), 239-287.
- 송다영 (2014). 사회복지부문 돌봄 관련 일자리의 질 저하에 관한 연구. 젠더와 문화, 7(1), 7-42.
- 송다영. (2008).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7-33.
- 송유진 (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한국인구학, 34(2), 45-64.
- 신윤정 · 김지연 (2009).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연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자영 (2008). 시간 사용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미국의 노동과 여가 시간에 최근의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6(12), 114-120.
- 윤홍식 (2006).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341-370.
-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이영환 (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16(3), 471-495.
- 이원영 (198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연구. 유아교육연구, 5, 101-137.

- 이중섭 · 이용교 (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26, 159-191.
- 이재림 · 김지애 · 차동혁 · 이향희 (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27-47.
- 이창순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4: 40(2), 29-54.
- 주은선 · 김사현 · 김민성 (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367.
- 주익현 (2012). 한국 맞벌이 부부 가사시간 결정요인 탐색.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99-1113.
- 차승은 (2015).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시간압박감과 관련요인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5), 37-53.
- 차승은. (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허경옥 (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12(2), 90-105.
-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현재은 · 권혁주 (2013).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여성의 돌봄시간 분석. 한국행정학보, 47(1), 269-293.
- 홍승아 · 이미화 · 김영란 · 유계숙 · 이영미 · 이연정 · 이채정 (2009). 일가족 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록] 추가 분석 결과 표 정리

<표 1>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OLS)

	총 돌봄시간					
	미성년 자녀		10세 미만자녀		10세 이상자녀	
	coef.(se)	t	coef.(se)	t	coef.(se)	t
상수항	144.65*** (16.60)	8.71	152.03*** (16.99)	8.95	-7.38	-1.51
ref. 고졸 이하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	7.80* (3.60)	2.17	6.45+ (3.69)	1.75	1.35 (1.06)	1.27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0.53*** (3.54)	2.97	8.16* (3.63)	2.25	2.37* (1.04)	2.27
석사 졸업 미만						
석사졸업 이상	15.16* (6.50)	2.33	12.52+ (6.65)	1.88	2.64 (1.91)	1.38
자녀연령	-6.21*** (0.49)	-12.71	-5.96*** (0.50)	-11.90	-0.26+ (0.14)	-1.78
미취학자녀수	28.55*** (3.10)	9.21	30.13*** (3.17)	9.50	-1.58*** (0.91)	-1.74
취학자녀수	-5.06* (2.20)	-2.30	-11.72*** (2.26)	-5.19	6.65*** (0.65)	10.26
월평균가구소득	0.00	0.32	0.00	0.08	0.00	0.82

	(0.01)		(0.01)		(0.00)	
여성	35.17*** (4.71)	7.47	27.76*** (4.82)	5.76	7.41*** (1.38)	5.35
만나이	-0.45 (0.35)	-1.27	-0.53 (0.36)	-1.47	0.08 (0.10)	0.81
가구소득 기여도	-25.56*** (7.36)	-3.47	-25.77*** (7.53)	-3.42	0.21 (2.16)	0.10
일한시간(주당)	-0.98*** (0.12)	-8.20	-0.96*** (0.12)	-7.81	-0.02 (0.04)	-0.68
고용상태 (ref.전일제)						
시간제	-3.24 (7.52)	-0.43	-6.14 (7.70)	-0.80	2.90 (2.21)	1.31
자영업	8.32* (3.99)	2.09	8.45* (4.08)	2.07	-0.13 (1.17)	-0.11
무급가족종사자	1.34 (11.15)	0.12	1.81 (11.41)	0.16	-0.47 (3.28)	-0.14
비취업	24.20*** (6.97)	3.47	17.17* (7.13)	2.41	7.03*** (2.05)	3.43
	0.5815		0.5655		0.1610	
Adjusted R^2	0.5790		0.5629		0.1560	
F	233.70***		218.91***		32.28***	
N	2539					

주) +p<.1, *p<.05, **p<.01, ***p<.001

〈표 2〉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 발달돌봄 시간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OLS)

	총 발달 돌봄시간					
	미성년 자녀		10세 미만자녀		10세 이상자녀	
	coef.(se)	t	coef.(se)	t	coef.(se)	t
상수항	57.56*** (8.17)	7.04	60.09*** (7.83)	7.68	-2.53 (3.21)	-0.79
ref. 고졸 이하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7.88*** (1.77)	4.44	7.44*** (1.70)	4.38	0.43 (0.70)	0.6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석사 졸업 미만	6.57*** (1.75)	3.76	5.24*** (1.67)	3.14	1.33+ (0.69)	1.93
석사졸업 이상	10.46*** (3.20)	3.27	8.26* (3.06)	2.70	2.20+ (1.26)	1.75
자녀연령	-2.33*** (0.24)	-9.68	-2.11*** (0.23)	-9.16	-0.22+ (0.09)	-2.30
미취학자녀수	5.36*** (1.53)	3.51	6.18*** (1.46)	4.23	-0.82 (0.60)	-1.37
취학자녀수	-2.28* (1.09)	-2.10	-5.04 (1.04)	-4.85	2.76*** (0.43)	6.48
월평균가구소득	0.00 (0.00)	-0.28	0.00* (0.00)	-0.40	0.00 (0.00)	0.25
여성	7.51***	3.24	5.10	2.30	2.42+	2.66

	(2.32)		(2.22)		(0.91)	
만나이	-0.21 (0.17)	-1.18	-0.25 (0.17)	-1.49	0.04 (0.07)	0.61
가구소득 기여도	-6.02 (3.62)	-1.66	-5.46 (3.47)	-1.58	-0.56 (1.42)	-0.39
일한시간(주당)	-0.31*** (0.06)	-5.20	-0.31 (0.06)	-5.53	0.01 (0.02)	0.24
고용상태 (ref.비취업)						
시간제	-0.05 (3.70)	-0.01	-1.09 (3.55)	-0.31	1.04 (1.46)	0.71
자영업	0.48 (1.96)	0.24	1.43 (1.88)	0.76	-0.95 (0.77)	-1.23
무급가족종사자	-2.90 (5.49)	-0.53	-1.28 (5.26)	-0.24	-1.62 (2.16)	-0.75
비취업	8.89* (3.43)	2.59	5.72+ (3.29)	1.74	3.17+ (1.35)	2.35
	0.3625		0.3763		0.0623	
Adjusted R^2	0.3587		0.3726		0.0567	
F	95.66***		101.50***		11.17***	
N	2539					

주) +p<.1, *p<.05, **p<.01, ***p<.001

Abstract

The Influence of parent's education level on parental child care time

-Focus on developmental care time-

Lee, Yel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and their time spent on child care. This paper is especially focusing on developmental care time which could lead to better human capital of the children. If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affect the child care time, this could mean that there are inequality factors among the people at different socioeconomic levels which could potentially lead to polarization in the society. Time investment in children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It is also one possible mechanism through which economic status i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2014 Korean Time-Use Survey (KTU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verify whether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parents affect the parental care time and to confirm that this effects are still significant, other variables which could affect the results such as the age of the children were controlled. The samples of this study are limited the applicants to those who are married and have at least one children aged 18 and under.

Methodologically, this study performed Tobit analysis to examine whether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affect the parental care time. Meanwhile, although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aren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 required care time or category may vary depending on the child's age. Therefore, the care time spent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and children aged 10 years and older were separately analyzed since the amount of time and care required by the children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age group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most studies concluded, the amount of time spent of the parents on their children is undoubtedly related to their own education level. Specifically, it showed that compare to the high school graduate parents, par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spent more time on their childre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total care time according to the age of the child, the caring time for children under 10 years showed a similar result to that owhole model.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of the time spent on children aged 10 years and older

was different to previous group, which showed that there were gaps on the time spent on children, as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parents were differ from one group to another. It is assumed that such result was occurred, because the amount of time and care requiref the d for the children aged 10 and older are compatibly less to the children aged younger than 10.

On the next analysis, this paper looked at the effects of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on developmental care time on children, which is strong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hildren. The parents' education level stil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velopmental care time of their children. The coefficients of the developmental care model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total care model.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al care is part of the total child care, it could be assumed that the differences occurred in caring time spent in the previous analysis was mainly due to the developmental care time. When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high school graduates, they have spent more care time for children under 10 years old, and the differences due to the different educational levels also appeared in developmental care.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caring time model of children aged 10 years and older showed somewhat different results from those of the previous models. Unlike the previous model, the influence of the education level did not show in all the groups, but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when the educational level gap was large. In the case of the parents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or a higher education, they have spent more time on child caring

compared to those who are high school graduates.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level on developmental care time spent for children aged 10 years and older was only maintained when the parents had degrees in masters or higher and that they were spending more time on caring compare to the high school graduate and under educated parents.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that caring time spent for children aged 10 years old and older is not much different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s of the parents, but the group of the relatively high educational levels of the parents still carry on with spending more time on child care even at the school age where the caring time required is relatively decreas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time maintenance policy such as care time guarantee policy, the activation of the program such as parent education.

Key words : Parent's education level, Parental care time, Developmental care, Time source,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human capital

Student Number : 2016-20212